

## 남가주교계 사랑의 쌀 현재까지 6만 달러 모금

쌀 신청자는 4천5백 여명으로 집계

남가주교계가 벌이고 있는 사랑의 쌀 운동이 17일 현재 6만10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가주교협이 20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6개 교회가 2만5040달러, 32개 단체가 1만2150달러, 87명 개인이 2만2820달러를 기부했다. 남가주교협은 1월 31일까지 후원금을 접수하며 사랑의 쌀 신청도 이날까지 받는다.



남가주교협은 사랑의 쌀 기부금으로 현금과 동일한 쿠폰을 해태로부터 구매해 배부하고 있다.

기부에 참여한 교회 중에는 주안예교회 1만5240달러, 나성순복음교회가 2천 달러, 새생명비전교회가 2천 달러, 남가주사랑의교회가 1천 달러, 풍성한교회가 1천 달러 등을 후원했다. 지난 해에는 대형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52개 교회가 사랑의 쌀 모금에 동참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대형교회들의 동참이 많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모금액도 상대적으로 적어졌지만 중소교회들의 참여가 오히려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나성소망교회와 UBM교회는 각각 5백 달러, 창대교회는 3백 달러, 미주베델교회와 나성주님의교회 등은 각각 2백 달러를 기부했다.

단체 중에서는 이화여고 남가주동문회가 2천 달러, 종교평화회의회가 1천4백 달러, 남가주한인목사회가 1천 달러를 헌금했다. 이 외에도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벨리교회, 벨리원로노년목사회, 샌버나디노교회, 윌서은행 등 32개 단체가 함께 했다. 개인은 87명이 동참했다. 개인들은 최대 3천 달러부터 작게는 10달러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동참했다.

한편, 남가주교협은 10일 전인 1월 7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의 쌀 운동 진행 상황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교협은 5만9180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히며 작정금액도 5500달러가 있다 밝힌 바 있다. 17일 보고에 따르면, 총 모금액은 6만10달러이며 작정금액은 여전히 5500달러로 기록돼 있다.

남가주교협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쌀 쿠폰을 신청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교협은 이 쿠폰을 장당 7.90달러에 구매했다. 이 쿠폰은 복제방지를 위해 일련번호가 기록되고 직인이 찍히며 특수한 흠이 파여 있다. 최혁 회장은 "쌀 공급업체인 해태로부터 이 쿠폰을 구매해서 발송하고 있기에 이는 현금과 동일하며 어느 마켓에서라도 1년 내내 15파운드 해태 쌀과 맞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후원금액에 맞추어 쌀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교협이 해태로부터 쿠폰을 구매하고 해태가 쌀과 교환해 주고 있는 형식이기에 후원금액과 쌀 구매비용은 얼마든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후원금이 남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그대로 내년 사랑의 쌀 기금으로 이월한다"고 말했다. "후원금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교협이 헌금해서 부족 부분을 채우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약 4천5백 여명으로 후원금액이 부족하지 않다.

올해 사랑의 쌀 헌금은 남가주교협으로 우편(981 S. Western Ave. #401 Los Angeles CA90006)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scalckc.org에서도 가능하다. 문의) 323-735-3000

김준형 기자



## 풀러 동문들 1박2일 가족 수련회

풀러신학교 한인총동문회가 주최하고 한인M.Div.동문회가 주관한 2015 풀러 한인동문 가족수련회가 데저트스프링스에서 18일부터 19일까지 열렸다. 이 수련회에는 동문과 그 가족 67명이 모여 말씀과 교제를 나누었다. 첫째 날 저녁에는 원영호 목사(새장로교회)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후, 소그룹 모임이 이어졌고 둘째 날에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목회자의 건강한 영성 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판결 재검토

보수 단체들, "각 주에 결혼 정의할 자유 인정해야"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제6순회항소법원이 내린 4개 주 '동성결혼 금지' 지지 판결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이 뒤집힐 경우, 각 주에서 동성결혼을 불법이라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에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고 만다. 전통결혼 옹호 단체들은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미국 내 결혼의 미래가 판가름될 것'이라며, 각 주에 결혼을 정의내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6순회항소법원에서는 11월 당시 재판관 2:1의 판결로 미시간, 오크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4개 주에서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지함으로써 미국 내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10월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는 인디애나, 오크라호마, 유타, 버니지아, 위스콘신 5개 주의 상고

를 기각한 이래로 동성결혼 인정 판결이 쏟아져 나오던 상황이었다.

연방대법원은 16일 제6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오는 4월 재검토할 계획을 공표했으며 현재까지 내려진 연방대법원 판결들로 미뤄볼 때 동성결혼 금지지지를 지지한 판결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수 단체인 헤리티지파운데이션의 라이언 앤더슨 연구원은 "이들 4개 주의 주민 대다수가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정의 내리는 데에 찬성하는 투표를 했다"며 "결혼에 대해 결정을 짓는 것은 주민들과 그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해야 하지 판사들이 아니다"고 각 주의 동성결혼 금지 의지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라 향후 동성결혼과 관련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해석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된다. 동성결혼 지지 단체들은 수

정헌법이 규정한 '법 아래 평등 보호 원칙'에 따라 각 주 정부가 동성애자들에게도 결혼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타주에서 발급된 결혼증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채드 그리핀 회장은 "연방대법원의 9명의 판사들은 수많은 가족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을위한전미연합의 브라이언 브라운 회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결혼과 종교자유를 위해서 싸워 온 미국인들에게 승리를 안겨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장인 러셀 무어 박사는 "연방대법원이 결혼의 정의를 바꾸지 않기를 기도한다"며 "결혼은 정부 정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또한 정부 정책으로 재창조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순현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호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피드몬트 대학교**  
 피드몬트 대학교는 글로벌 지식정보시대에 기독교 인재양성목적을 지향하는 기독교 정규종합대학교입니다.

**Faith** (신앙) → **Think** (생각하라) → **Analyze** (분석하라) → **Create** (창조하라) →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  
**Science** (과학)

이사장 Dr. Tori William, Ph.D.  
 총장 Dr. William Stinde, Ph.D.  
 학감 Dr. Jonathan Lee, Th.D.

A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T (323)777-5269 F (323)777-3681  
 E registrar@piedmontuniversity.com, admissions@piedmontuniversity.com Copyright(c) 2007-2010 Piedmont University





주님세운교회가 IS의 테러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터키의 난민촌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 주님세운교회 IS 피해난민 구호 활동

주님세운교회가 13일부터 28일까지 터키 난민촌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성규 담임목사와 운삼학 장로를 비롯한 성도들은 IS로 인해 난민으로 전락한 이라크와 시리아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터키 내의 3군데 난민촌을 방문해 빵과 식수, 모포 등을 제공한다. 개당 300달러 상당의 한 패키지이면 난민 한 가족이 한달간 생존할 수 있다.

주님세운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금을 시작해 9만 달러를 모금했다. 또 조지아순복음교회가 박성규 목사의 방송설교

를 듣고 모금에 뜻을 함께 해 2만 달러를 보내와 총 11만 달러가 모금됐다.

주님세운교회는 특별히 이번 구호활동을 위해 1월 10일 자선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이 음악회에서는 영아티스트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골다 버크만, 바리톤 윤기훈 등이 출연해 연주했다. 메인 무대는 드림오케스트라 단원을 중심으로 40명 이상의 남가주 음악인들이 다니엘 석 집사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을 연주하여 감동을 선사했다.

김나래 기자



밸리교협이 2015년 신년하례회를 은혜와평강교회에서 드렸다. 행사 후 기념촬영.

###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밸리교협"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회장 광덕근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은혜와평강교회에서 신년하례회를 드리고 밸리 지역 교회들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2015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문일명 목사(한우리장로교회)의 사회로 드린 신년 예배에는 이 지

역 원로 목회자들도 참석했다. 녹4장 14-15절을 본문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광덕근 목사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심도, 제자들이 죽음을 두

려워하지 않는 복음전도자가 된 것도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권능으로 가능했다"면서 "밸리 지역의 목회자들이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자"고 권면했다.

예배 후 회원들은 은혜와평강교회가 준비한 선물과 식사를 나누었다.

김나래 기자



엠마오장로교회 최준우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린 후,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

### 엠마오장로교회 담임에 최준우 목사 취임

엠마오장로교회 담임에 최준우 목사가 취임했다. 18일 취임예배에서 최 목사는 "무릎을 꿇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목회의 길"이라면서 각오를 다졌다.

설교한 안병권 목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엡2:20-22)"라는 설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성전이 되는 것이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주자"고 강조했다.

이어 격려사를 전한 김관중 목사는 "예수님은 엠마오에서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성도에게 다가가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가 돼라"고 당부했다.

엠마오장로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 18435 Valley Bl. La Puente, CA91744에 위치해 있다. 전화는 626-913-9191이다.

문소현 기자



선포식에 함께 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수퍼바이저, 실라 쿠엘 수퍼바이저, 박상원 명예총회장, 진교륜 박사, 마이클 안토노비치 의장, 김영진 장로, 미주한인재단의 김성웅 전국총회장, 정동철 LA 회장, 이응남 LA 총무,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 돈 크나베 수퍼바이저 ©미주한인재단 제공

### LA카운티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 선포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미주 한인의 날을 선포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미 연방의회가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한 이래, 2005년부터 매년 미국 주류 정치권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을 대외적으로 재확인, 선포하는 행사가 계속돼 왔다.

올해 1월 12일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회에서 '2015년 미주 한인의날

선포식'이 있었으며 20일에는 LA카운티가 동일한 행사를 치렀다. 이번 선포식에는 한국의 전 농림부 장관이자 5선 의원 출신의 김영진 장로가 참석해 연설했고 이를 백악관 차관보 출신의 진교륜 박사가 통역했다. 또 미주한인재단 박상원 명예전국총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김준형 기자

### 구세군나성교회 김승해 선교사 초청 부흥회



구세군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는 창립 34주년을 맞이해 김승해 선교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한다.

김승해 선교사

김 선교사는 이 부흥회에서 아프리카 복음화에 대해 설교함과 동시에 이슬람에 관한 성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집회는 1월 23일과 24일에는 오후 7시 30분, 주일인 25일에는 오후 5시에 열린다.

주소)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90006  
전화) 213-480-4814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킨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 Happy New Year!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충만만으로 말씀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나성순복음교회**  
LAFGC LA FULL GOSPEL CHURCH

담임목사 :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 913 - 4499  
Fax 323 - 913 - 4494  
www.lafgc.com  
lafgcusa@yahoo.com

**주일 대예배**  
오전 7:40 분당

**예배 모임**

<b>1부</b> 오전 7:40 분당	<b>2부</b> 오전 9:30 분당	<b>3부 (열린예배)</b> 오전 11:45 분당	<b>4부</b> (조용기 목사 영성예배) 오후 1:30 권사회실
----------------------------	----------------------------	------------------------------------	---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분당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분당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분당

**영아부 예배 (0-3세)** 주일 오전 9:30, 11:30 / 분당 영아부실  
**유치부 예배 (4-5세)** 주일 오전 09:30, 11: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유년부 예배 (1-5학년)** 주일 오전 09:30, 11:30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WG 영아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아중고등부실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 분당

**EM 예배**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09:30 / 구 교육관



# 남가주여성목사회장에 강지원 목사 취임

## 한인 고등학생 7명에게 장학금도 전달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장에 강지원 목사가 취임했다. 예배를 드린 후 기념 촬영.



여성목사회가 한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가장 좌측이 강지원 신임회장, 가장 우측이 백지영 직전회장.

제5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에 강지원 목사(한우리장로교회)가 취임했다. 1월 18일 한우리장로교회에서 열린 회장단 이취임식에서 강 목사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기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성목사회를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성목사회는 지난해 남가주한인목사회와 함께 일일식당을 펼쳐 조성한 장학금을 7명의 한인 고등학생들에게 300달러씩 전달하

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했다. 예배는 수석부회장 안세라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서기 이순자 목사가 기도하고 총무 정경희 목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봉독했다. 이어 인랜드미션 대표 강부웅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회계 박순희 목사가 헌금기도 한 후, 백지영 직전회장에겐 공로패가, 강지원 신임회장에겐 취임패가 증정됐다. 이 취임식을 축하하며 김현명 LA 총영사, 영 김 주하원의원, 최혁 남가주교협 회장이 축사를 서면으로 보내왔고 제임스 안 LA한인회장과 이선자 OC여성목사회 회장이 직접 행사에 참석해 축하했다.

김준형 기자

# 그날까지선교연합 새 사무실 입주

북한 구원을 위한 통곡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날까지선교연합(UTD-KCC Missions)이 17일 새 사무실에 입주하며 오픈 하우스 예배를 드렸다. 주소는 24196 Alicia Pkwy, Suite E Mission Viejo, CA 92691이며 전화는 949-854-4010이다. 대표 손인식 목사는 “그동안 사무실도 없이 북한선교 사역에만 전력을 왔는데 이제는 작은 공간을 열어도 좋을 만큼 안정되고 주변상황이 정착됐다”면서도 “저는 미국, 한국, 유럽을 오가는 관계로 사무실에서 만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까지선교연합이 새 사무실에 입주하며 오픈 하우스 예배를 드렸다.

선교연합 측은 화분이나 화환 등을 사절하고 동역자와 후원자만 초청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오픈 하우스 행사를 마쳤다. 예배에서는 미주 북음방송 송정명 목사가 설교했다.

문소현 기자

# “이 땅을 고치소서” 전국 7개 도시 기도성회 열린다

## 미기총, JAMA 주최로 은혜한인교회에서 시작



미기총과 JAMA가 주최하는 “도시와 미국의 부흥을 위한 지역교회 연합기도성회”가 열린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첫 행사를 준비하며 OC교협과 OC목사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해 손을 맞잡았다.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을 위한 전국 규모의 중보기도운동을 시작한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기홍 목사)와 JAMA(대표 강순영 목사)는 “도시와 미국의 부흥을 위한 지역교회 연합기도성회”를 남가주 OC 지역을 시작으로, 달라스, 뉴욕, 워싱턴DC, 시카고, 시애틀 등에서 연다. 이 두 단체는 지난해 11월 11일 일바인 베라이즌 극장에서 열렸던 다민족기도회의 기도 열풍을 전국의 한인들에게 확산시켜 한인들이 미국의 부흥과 영적 대각성의 주춧돌이 되자는 비전을 세웠다. 그 첫 행사가 바로 1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연합기도성회다. 주제는 “Heal Our Land, 이 땅 고쳐 주소서”이며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 뉴욕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다. 이번 성회는 22일 밤부터 시작해 24일 밤까지 매일 밤 7시, 새벽 5시 30분에 집회가 있다. 설교 후에는 박용덕(남가주빛내리교회), 민경엽(나침반교회), 이서(미주비전교회),

곽재필(남가주지구총교회·OC목사회장), 정우성(남가주광염교회) 목사와 김철민(CMF) 장로, 청년 사역자인 김정우, 정기정 목사, 더글라스 김(HYM) 대표 등이 기도회를 인도한다. 이들은 미국과 각 도시의 부흥, 한국의 부흥, 청년 세대의 부흥, 선교의 부흥을 놓고 기도한다. 한편, 이를 준비하는 기도 모임이 최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OC 교협회장인 김기동 목사는 “OC 지역 교회들이 지난 11월 11일 다민족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번에도 모든 교회가 연합해 기도의 불길을 전국으로 확산하자”고 강조했고 JAMA 대표 강순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부흥의 불길을 더욱 타오르게 하자”고 말했다. 지난 다민족기도회의 한인중보기도팀은 이번 남가주 지역 성회에서도 매일 2시간씩 행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이 기도팀은 김경일 목사와 전혜숙 목사가 이끌고 있으며 뜻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213-507-3875 김준형 기자

# OC 한인여성 위한 무료 유방암 검진 행사

YWCA 북부 오렌지카운티 지부에서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유방암 조기검진 행사를 실시한다. 오는 1월 24일 복음장로교회(김상덕 목사,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90631)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정오까지 행사가 열린다. 40-64세 사이 저소득층 무보험

자 혹은 보험이 있더라도 PPO로 디덕터블이 높으면 무료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지부에서는 연중 여러 차례 무료 검진 행사를 벌여 한인 여성들의 건강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문의) 그레이스 김 714-871-4488 ext)204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동명대-버드-서우안정빌딩) T.323.737.8888

Fullerton 지부: 1701 W Orangehorse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아리랑마켓 옆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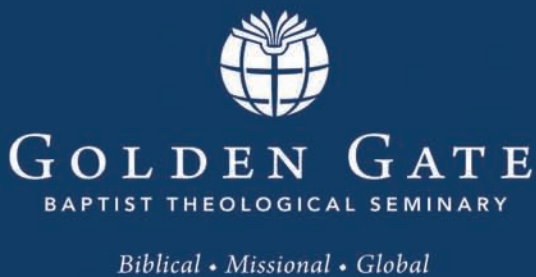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450	
4개 구입시 \$230		4개 구입시 \$555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 “기독일보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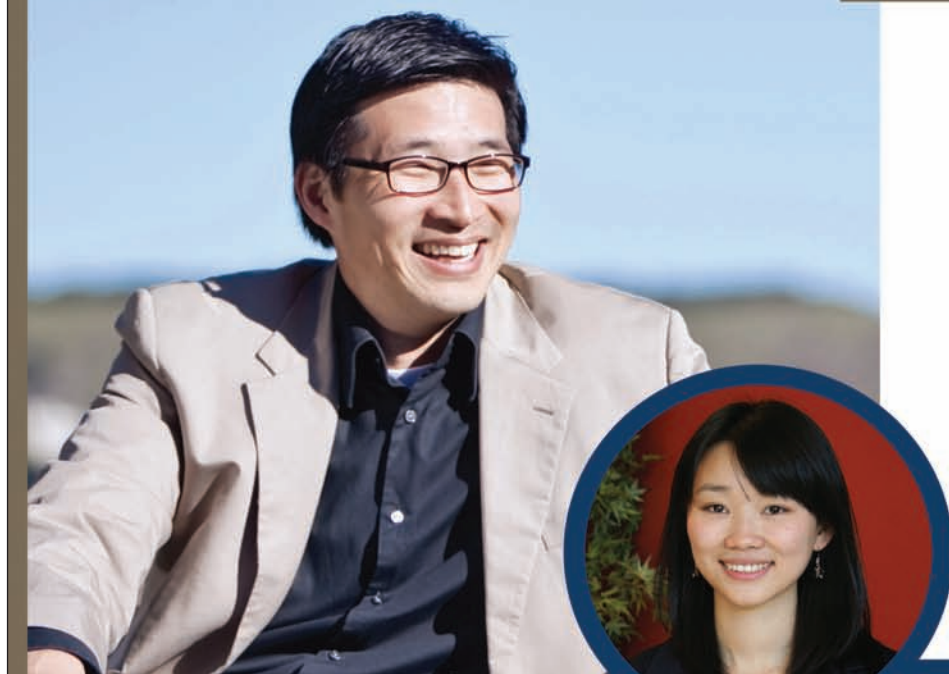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한국 청소년 19명, LA에서 미국 체험... KCCC와 전도

## 채한성 음악감독이 이끄는 미래지도자학교 참여



미래지도자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미국을 투어하면서, 이와 동시에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등 영적 훈련을 받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인 청소년 19명이 LA에 체류하며 한 달 동안 영성훈련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른바 “미래지도자학교”다. 청소년들이 미주를 투어하면서 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언어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은 이미 많지만 이 미래지도자학교는 특별히 영성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미주의 주요 대학과 남가주 지역 대형 미국 교회, 한인교회를 방문하는 것 외에도 새벽예배와 찬양집회 등이 일정에 포함돼 있다. 특히 KCCC와 함께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일정이 눈에 띈다.



이 학생들을 이끌고 있는 채한성 음악감독

이들을 이끌고 있는 이는 찬양사역자이자 작곡가, 프로듀서인 채한성 음악감독이다. 채 감독은 CTS기독교TV 워싱턴의 음악감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자신의 솔로 앨범도 3집까지 낼 정도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 사랑 은누리에, 예수는 나의 왕, 따스한 햇살처럼 등 유명한 CCM 70여 곡을 작곡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CCC의 예수영화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최한규 목사와 차세대 훈련에 비전을 함께 하고 이 학교를 기획해 이번이 첫 회다.

그는 “찬양사역과 이 사역이 무슨 관계인가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음악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 함

께 예배하며 청소년들에게 영적인 비전을 심어 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벌써부터 삶의 각오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자 노력하는 청소년들이 있어 가슴이 벅차다”고 덧붙였다.

1월 8일에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2월 7일 출국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들은 한 사람당 비행기 값을 포함해 3천불의 비용을 들여 미국에 왔다. 현재로서는 주최측이 계획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기에 재정적으로 다소 부족하다. 채 감독은 “처음부터 무리수를 놓고 시작한 프로그램이긴 하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뜻있는 분들이 적은 돈이라도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헌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 감독은 LA 지역 한인교회 찬양집회 일정을 특별히 갖고 있지 않지만 원하는 교회가 있을 경우, LA에 체류하는 동안 찬양사역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품고 있다. 문의) 213-265-1245

김준형 기자

##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려는 단체가 20일 LA 한인타운 내 거든스위 호텔에서 발족했다. 이들은 발기인 모임을 통해 <반기문 UN사무총장 노벨평화상 추천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창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 농림부 장관

이자 5선 국회의원인 김영진 장로, 진교련 전 백악관 차관보, 박상원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미주공동회장 등과 송정명 목사, 한기형 목사, 김영길 목사 등 목회자들과 KCCD의 임혜빈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가 초안을 내놓은 발기문에서 이들은 “그(반

기문 총장)의 헌신적 노고는 많은 지구촌 분장지역과 소외지역에 연대와 일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어 왔고, 특히 최근 에볼라 확산 저지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아이디어는 지구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래 기자

# W M S WISDOM MISSION SCHOOL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 / 학생이 변화되는 학교



### 인생의 빛을 찾았다

본지는 학업을 포함해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학생들이 WISDOM MISSION SCHOOL(WMS, 지혜 선교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명문대에 진학했는지를 알려주는 간증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다.

WMS는 199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약 45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Harvard, Yale, Stanford, UC Berkeley 그리고 의과대학 등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에 입학시켜 온 Han Sam SAT 학원이 모태다.

이 학교는 이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각 학생들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견, 계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세상에 진출시키는 데에 그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5번째 간증> 나는 10학년 2학기에 위즈덤미션스쿨에 전학하



Min Park 양  
Occidental 칼리지

주셔서 A학점 받기가 어렵지 않았다.

더구나 자아를 발견하였고 공부 재미있었다. 위즈덤미션스쿨의 기독교 교육의 분위기에서 나는 인생의 빛을 찾았다. 친절하고 교사들의 수고, 친구들의 격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Occidental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나는 튼튼한 교육 기초와 훈련을 준 위즈덤미션스쿨 교사들과 믿음을 갖게 인도해 주신 교장선생님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다음 호에 계속>

학교 문의) 5851 Newman St, Cypress, CA90630  
714-995-1900 / www.wisdommissionschool.com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장재효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 주제: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계 쓰임받자

장소 : JJ 그랜드 호텔

일시 : 1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문의 : 213-239-3207  
남철우 목사

###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산(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선택된 자의 은혜보장

창세기 12:1~2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행동지침을 하달하셨는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첫 번째 행동지침은 본토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토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잔뼈가 굵어지면서 생활터전이 되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즉시 너는 내가 살아온 네 생활의 본거지인 정든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지침은 친척을 다 내던지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척이라 함은 아브라함의 만형 이름이 하란이었는데, 하란이 뜻이라는 아들 하나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 조카가 삼촌 밑에서 삼촌을 도우며 할아버지를 도와 그 우상 가게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조카도 두고 가길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행동지침은 아비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인연을 모두 다 자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이사하라 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창12:2)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내외를 두고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전혀 이해하기 곤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18절~20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胎)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었고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끊어야 하고 떠나야 할 것이 세 가지이고 그 세 가지를 실천했을 때에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네 후손 중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게 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 얻어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복을 내리게 해주마" 이것이 삼중 축복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처럼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믿음의 뿌리가 깊지도 아니해서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 중 본토를 떠나라는 명령만 지켰습니다. 늙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올라 가다가 하란이란 곳까지 갔습니다. 꽤 오래 걸려서 갔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나귀에다 싣고 수레에 싣고 가족을 데리고 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가고 그러다 보니 행보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의 중간 지점인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숨도 차고 늙고 기력이 쇠잔해서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여기 머물러 살자고 하며 자신이 죽거든 묻어 주고 하나님 지시를 따라 가나안에 가서 복받고 잘 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주저 앉았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빨리 가나안에 와서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복을 누리며 잘 살게 될 것이니까 아버지를 두고 떠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명령이지만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사람의 생각, 혈연의 인연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아버지가 붙들고 주저 앉는다고 그곳에서 여러 해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수를 잃게 되는 불행한 폐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더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고 결국 돌아가시고 그곳에다가 묻어 놓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벌써 여러 해가 지난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여 지내던 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흉년 속에서 자기를 불러오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결의 대책을 바랐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직 초보여서 거기까지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 내외를 데리고 재산과 가족을 끌고 남쪽으로 좀 더 살기 좋은 땅이 없는가 하고 더듬어 내려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믿지도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 때까지 신앙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옛 사람은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데라에게 붙들려 하란에서 여러 해를 지체하느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점수가 마이너스 점수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옛사람의 사고방식, 구조적인 의식, 인간의 생활 관습 이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나

야 합니다. 오로지 말씀에 사로잡히고 영적 체질로 바뀐 사람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자기 기대에 살만한 곳을 찾아 내려 가다가 이집트라는 국경을 넘어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나일강 물이 창일하게 흐르고 강 양 뚝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었고 채소가 싱싱하고 아주 살만한 곳이라 여겨졌습니다. 육신이 먹고 살기엔 여기가 최고라 생각되어 그곳에 말뚝을 박고 짐승들과 함께 살겠다고 자리를 잡으니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남의 나라, 이민 허가도 받지 않고 관광비자도 없이 불법체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아내의 아름다움이 걱정거리가 되어 "이 땅에 주인되는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아 챙기기 위하여 필경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걱정이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를 묻거든 오빠와 여동생이라고 해"하며 소양교육을 시켰습니다.

결국 사라는 파라오 왕의 눈에 들어 결혼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대신에 많은 금은 보화와 낙타, 나귀, 양과 소 등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지만, 아브라함의 속은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두고 면책을 합니다. "내가 우리 땅에 들어와 살면서 네가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벌 받게 하려고 네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나를

저주 받게 하나"고 야단칩니다. 신앙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어리석은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되면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바로가 벌벌 떨며 "네 아내도 데려가고 내가 쫓던 염소고 나귀고 양이고 모든 재산 몽땅 가지고 빨리 우리 땅에서 멀리 떠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내가 나를 치실까 두렵다"하며 애급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급에서 금은보화와 많은 가족을 선물로 받고 마누라까지 되찾고 이집트를 떠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모레 상수리나무 밑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 같은 이삭도 주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지금 아랍이 42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인연 다 끊고 거듭나서 육적인 것을 벗어나 영적인 사람으로 새 출발하라 하실 때에 속히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 다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아브라함. 이 세 가지를 더디 벗어나기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나 완전히 벗어나고 나니까 약속의 복이 서둘러 물을 쏟아 붓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과정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깨우쳐 주는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옛사람과 행실을 빨리 버리고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로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서둘러 주실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기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장: Sevis I-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석사 전공)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학단고기,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de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213-908-8986  
email: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seu@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us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자동차 도네이션

**아리조나 인디오 선교사에게  
자동차가 절실 하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도네이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눅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Tel. 424 - 220 - 0360 (전 에스더 선교사)  
213 - 718 - 1512

###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우리 교회 청년부 교역자였던 목사가 학생시절의 체험을 말했다. 예배 때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 위 목사의 입에서 숨사탕 같은 하얀 물체가 나와서 자신의 입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숨이꿀 같은 말씀”을 숨사탕의 모습으로 체험을 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얼마 전에 다녀간 김진홍 목사는 감옥이 너무 추워서 성경에 나오는 불이라는 말씀을 모두 찾아 읽기 시작했다 한다. 그러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 추운 감옥이 따뜻한 곳으로 변하였다. 심지어는 화장실의 변기까지 더워졌다고 한다. 김 목사는 그 불의 체험을 한 날이 올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념한다고 한다.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왜 하나님을 찾을까? 아니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영적인 선물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spiritual gifts, 恩賜)라고 한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자신의 임재이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원천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른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reward)이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 중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러한 상급을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누구나 직접 체험하고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동

행하심을 믿음과 실제의 체험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모든 선지자는 이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다. 바울, 요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임재의 영광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이다. 다른 아무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 거꾸로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연약한 예배의 환경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

영과 진리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찬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한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도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올해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넘치기를 기원한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예배를 위함이다.

### 2015년 하나님의 소원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새해가 되면 각자의 소원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의 기도제목을 쓰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2015년도의 기도제목을 쓴 후, 한 장은 보관용으로 본인이 성경책에 끼워두고 기도하며 한 장은 교회에 제출하게 하여 그 기도제목 카드를 갖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

기도는 한마디로 소원이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다. 그 소원과 희망을 하나님께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다.

대부분 소원을 요약해 보면 공통적으로 가정의 평안, 가족들의 건강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추고 과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201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길 원한다. 이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뜻이며 신앙생활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체험되어

적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음들로 가져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1:38), 인자의 온 것은 일어 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19:10)”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오셔서 전도하고 선교하셨다. 하나님의 소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교이다. 선교를 통한 구원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된 소식인 복음이다.

선교는 바로 생명의 소식, 복음의 소리, 구원의 길을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종족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 품으로 들어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선교는 구원의 다리를 놓는 것이다. 선교는 하늘과 땅의 다리를 잇는 것이다. 선교는 세상과 천국에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선교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

### 뭐라고 써 드릴까요?



김세환 목사  
LA한인연합감리교회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볼거리미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나에게 밀도 끝도 없이 한마디 던졌다. “당신은 이 다음에 죽으면 무덤에 뭐라고 써 주면 좋겠어?” 왜 갑자기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하나 궁금하여 아내가 읽고 있던 신문을 같이 보게 됐다.

거기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남겼다는 묘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묘비명은 한 줄 분량으로 요약된 짧은 글이지만, 그 속에는 대부분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있다.

어떤 사람은 묘비명으로 교훈이나 가훈을 기록하기도 하고, 살면서 경험했던 감동적인 문구들을 적어 넣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구절을 적는 것으로 묘비명을 대신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 중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틘와 유머를 잊지 않고 재미있는 글을 남긴 사람들이 있다. 영국의 극작가 베너드 쇼는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썼고, 교파 스님 중 광은 “에이, 괜히 왔다”고 썼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다”를,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위스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모든 일을 남을 위해 일했을 뿐,

르겠다. “평생 화만 내다 죽다”, “우라지게 건강만 챙기다 여기 늙다”, “평생 여행만 하다가 여기서 멈추다” 그리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여기서 쉬다”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묘비명이 아니다.

“여보, 나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당신이 한번 적어봐!” 나의 질문에 아내가 알맞은 얼굴 표정을 지으며 간단하게 한마디 한다. “평생 걱정만 하다 죽다” 나는 쓴 입맛을 다시며, “당신같은 철부지 때문에 그렇다!”라며 툭툭스럽게 한마디 던지고는 별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가버렸다.

그런데 문득 화장실에 달린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근심 걱정으로 쪼그라든 중년의 초췌한 남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눈을 힘을 주며 그 남자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걱정과 근심으로 늙어버린 모습이 역력했다. 이리다가 정말 아내의 말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걱정이 엄습해 왔다. 급한대로 이빨을 드러내며 한번 크게 웃어 보았다. 엉망없는 중년의 성질난 고릴라의 모습 그 자체였다.

새해에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





#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과 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 셀라케어 효능사례

##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b>발작, 자폐증, 무감각증</b>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b>대장암 말기</b>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 후 정상으로 회복됨
<b>원자력 피해</b>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세트 2달 복용 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b>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b>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 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련(77세)
<b>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b>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양의 M3세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 후 4년 뒤 뱃속을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b>간질과 약물중독</b>	16년 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 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b>직장암, 대장암 말기</b>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b>심한 아토피</b>	6년 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기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b>대장암</b>	대장암 초기 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세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b>비만, 우울증, 야뇨증</b>	여섯살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 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b>심한 당뇨, 고혈압</b>	30년 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세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적인 다리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숙(52세, 가디나)
<b>심한 알레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b>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세트 복용 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b>심장병, 담석, 전립선</b>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변화와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b>심한 관절염, 변비, 생리통</b>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b>중풍마비, 당뇨, 고혈압</b>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재(65세, 방배동)
<b>등 수술 후 심한 손떨림</b>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b>자폐증</b>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b>헤장암 말기</b>	60세 중년에 가장 힘들다는 헤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세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기적적으로 헤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옴. 피터 리(65세, 엘에이)
<b>폐암 말기</b>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하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b>자가 면역 질환</b>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팩(뉴저지)
<b>모유 아주적음, 심한 부종</b>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었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b>혈액투석</b>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 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b>중풍으로 인한 마비</b>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밑바닥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아던 중 M3세트를 알게 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b>임파선암</b>	2년 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도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b>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b>	13년 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b>전립선암과 부정맥</b>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b>파킨스 병</b>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b>반신불수</b>	목사님 이었고 5년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나고 있음. 최정석(50세, 엘에이)

### 건강과 성경 이야기 37

협압이란 혈관 내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혈액이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압력을 말함입니다. 심장이 수축할때 나타나는 혈압을 수축기 혈압, 확장 시에 나타나는 혈압을 확장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혈압은 120/80으로 표시하며, 120은 수축기 혈압, 80은 확장기 혈압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고혈압이란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상태로 보통 수축기 혈압이 160mmHg이상, 확장기 혈압이 95mmHg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실제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혈압의 수치는 개개인의 체중, 나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중 모든 사람의 수치가 똑같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서 유전적인 고혈압 인자나 화학소금의 과잉 섭취 등의 생활 습관, 비만, 스트레스, 추위, 과로, 등이 있습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 신장 혈관성 고혈압, 내분비성 고혈압, 심혈관성 고혈압, 뇌압 상승에 의한 고혈압, 임신 중독증에 의한 고혈압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신장 혈관성 고혈압의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후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솔로몬왕이 노년에 선한사람이든 악한사람이든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 할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인생 무상을 깨닫게 되어서 모든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37번의 기록을 전도서에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바람은 북쪽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불어 돌아다니다가 북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창조주의 섭리를 기록한 놀라운 부분도 있습니다. 1장절로 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4.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오고 6.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오고 이리 불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오고 7.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언하여 흐르니라 8.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측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느니라 9.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찌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0. 무엇이 가리켜 할 것이요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보통 "고혈압이다"라고 하면 특별한 증세는 없으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심장에 협심증, 심부전, 심근경색증 등에 고장을 초래하고, 수도관이라 할 수 있는 혈관에 이상을 유발하여 혈관의 막힘이나 파열을 일으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의 수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하여야 하는데, 고혈압의 치료에는 체중조절, 식이요법, 운동과 적절한 약물 요법 및 수술 요법 등이 있고 약물 요법으로 이뇨제, 교감 신경 억제제, 말초 혈관 확장제, 칼슘 통로 차단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등을 사용합니다. 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치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정확하게라도 아주 획기적으로 고혈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성경말씀 전도서를 잠시 살펴보면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0일에서 새것이 없다는 것은 8월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믿음, 사랑, 미움, 질투, 시기, 탐욕, 정욕 등은 옛날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림 어떻게 하면 고혈압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의 근본원인은 혈액이 좋지 않은 음식과 공해,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 곱씹어져 변하게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는 혈액을 보내려고 압력을 주는데, 혈액이 곱씹어져 잘 흐르지 못하니, 압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혈액을 지속적으로 드시며 응고된 혈액을 녹이면서 혈관도 녹이므로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문의는 213-435-9600번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http://www.sellacar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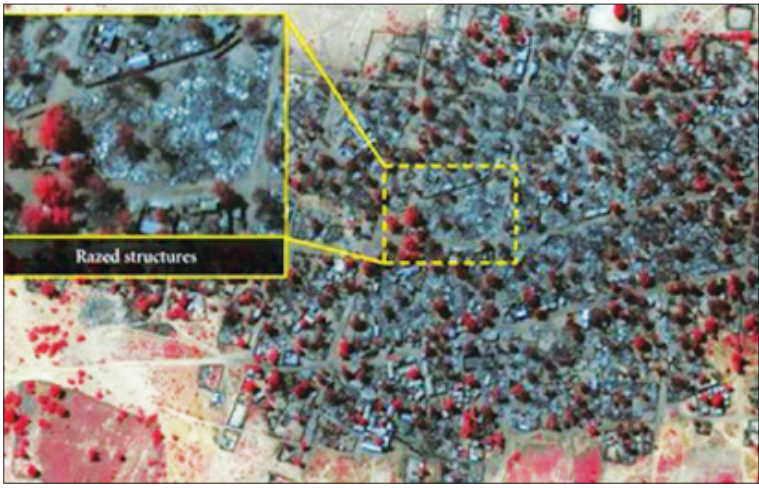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필달)	213.386.5310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뉴저지	201.983.8333
LA 아도모약국	213.385.2135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H 마트 내 H 헬스 (엘바인)	949.251.0193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818.642.8223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 다운타운	213.798.3333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플로리다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로랜하이츠	626.912.5727	NC/SC	770.457.1717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토렌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여성과 아이들 500여명 납치

젊은 여성 집중 감시·억류



보코하람에 의해 파괴된 마을의 규모를 나타내는 위성사진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대원들이 최근 500명의 여성과 아이들을 학교에서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나이지리아의 바가(Baga)와 도론바가(Doron Baga)에서 약 2,000명을 학살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잡혀 있다가 탈출에 성공한 캄투마 와리(Kaltuma Wari·40)는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납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면서 “여전히 500명 이상의 여성과 아이들이 인질로 붙잡혀 있다”고 했다.

와리는 남편과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 보코하람 대원에 의해 여학

생 기숙사 학교로 끌려갔다. 와리는 “그들은 어떤 여성들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젊은 여성들을 계속 지켜보았고, 총을 든 이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항상 불어 다녔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따라왔다”고 했다.

와리는 대원들을 위해 강제로 요리를 해야 했으나, 그곳의 많은 여성들은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여 밖에서 먹는 것을 거절했다. 와리는 점점 신경질적이 되어갔으나, 이 같은 감정의 쇠약함은 실제로 그녀에게 구원의 은혜가 됐다.

와리는 “대원들이 14일 오후 2시 쯤(현지시간)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는, 한 명씩 밖으로 불러내어 마을을 떠날 것인지 물었다. 약 100명 정도였던 우리는 모두 어머니였다. 그들은 젊은 여성들은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별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바가 학교에 약 300명의 여성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 포로가 된 지 단 4일 만에 석방된 한 여성도 와리와 비슷한 답변을 했다. “보코하람의 대원들이 젊은 여성 인질들을 선호하고, 다른 나이 든 여성들, 어머니들, 아이들 대부분은 그냥 떠나도록 했다”고 그녀는 전했다.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치복의 한 학교에서 276명의 여학생들을 납치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 가운데 수십 명 정도가 탈출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219명은 실종된 상태이다.

보코하람 지도자인 아부 바카르 세카우는 “남아있는 여학생들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거나 보코하람 대원들과 결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해진 기자

# 영국 성소수자 학생들 위한 학교 설립되나

전통적 결혼관 가르치는 기독교들은 폐쇄 위기



영국 학생들 ©pixgood.com

최근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 이른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특별 학교 설립 제안이 찬반 여론을 낳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소수자 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영국 성소수자 인권 단체 LGBT 유스 노스 웨스트(LGBT Youth North West)는 일반 학교들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 단체는 맨체스터 지역에 전체 학생 가운데 40%의 성소수자 비율을 유지하는 특별 학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고립을 유발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영국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와 같은 계획은 차별 철폐를 위해서 모든 유형의 특별 학교를 폐쇄해 온 영국 교육 정책에 반

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독립당(UKIP) 교육 분야 대변인인 폴 너틀은 “이러한 계획은 (일반 학생과 성소수자 학생 간의) 분리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이처럼 논의의 중심에 있는 반면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르쳐 온 학교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영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래로 영국 내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은 동성애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전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11월 마이클 윌소 영국 교육기초장관은 “현대 영국인들의 대안적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도록 교육하지 않는 학교들은 당국에 조사를 당하거나 학교 평가에서 뒤쳐지거나, 심지어는 폐쇄당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순헌정 기자

# 아 니제르서 ‘샤를리 엡도’ 규탄 시위 격화

10명 숨지고 교회 45곳 불에 타, 국가 애도 주간 선포

이슬람 국가들에서 샤를리 엡도를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니제르에서는 이같은 시위가 폭력 사태로 격화되고 있다.

니제르 정부는 19일(이하 현지 시간) 발표를 통해서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샤를리 엡도 항의 시위로 인해 현재까지 최소 교회 45곳이 불에 탔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도 발생해 수도 니아메와 진더에서 총 10명 가까이 시위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니제르 정부는 사망자들을 위해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으며, 사건 책임자들을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엡도는 지난 7일 테러 사건 이후 처음 발간한 잡지에서 이슬람 예언자 마호메트를 풍자한 만평을 게재했다. 샤를리 엡도는 14일 평소 발행 부

수 6만 부의 50배인 300만 부를 ‘생존자 특별호’로 펴내면서 ‘나는 샤를리다’라는 글을 쓴 마호메트 위에 ‘모든 것이 용서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만평을 표지에 실었다.

이 특별호는 날개 돋힌듯 판매되어 샤를리 엡도는 최근 200만 부 추가 발행을 결정했으며, 이에 발행 부수가 총 700만 부로 늘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샤를리 엡도를 사면서 숨진 만평가들에 대한 연대감을 표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서는 또다시 자신들의 선지자가 풍자지 표지에 올라간 것에 대해 극도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특별호가 발간된 이후로 파키스탄을 비롯해 요르단, 알제리, 니제르, 말리, 수단, 소말리아, 세네갈, 모리타니 등 중동과 아프리카의 이

슬람 국가들에서는 샤를리 엡도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일고기도 하다.

한편, 이같은 반(反) 샤를리 엡도 시위 확산에 대해서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컨선(ICC)의 케머런 토마스 아프리카 매니저는 ‘이슬람권 전체에서 마호메트와 무슬림들에 대한 만평에 분노한 무슬림들이 폭도를 형성해 기독교 교회와 가정, 사업장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있다. 특히 니제르, 말리, 수단, 소말리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슬람 국가들에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한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순헌정 기자

# IS, 동성애자 등 처형 장면 사진 공개

암살된 조직원들에 대한 복수인 듯

IS가 최근 동성애자, 간음자, 강도 등이 처형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다량 공개했다. IS는 또한 배교 혐의자들을 십자가에 매달거나 처형했다. IS가 공개한 사진에는 수백 명이 한 건물 주변에 모여서 동성애자를 건물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처형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이 있으며, “무슬림들이 법이 적용되는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다”는 아랍어 설명도 달려 있다.

IS가 동성애자들을 건물의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처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사진에 의하면, 윌라야트 알 푸라트 지역의 IS 대원 8명은 한 남성 동

성애자를 3층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렸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같은 행위들에 대해 “최근 발생한 IS 조직원들 암살에 대한 복수”라고 보고 있다. 시리아인권관측소 라미 압델 라흐만(Rami Abdel Rahman) 대표는 “IS는 데이르 예조르에서 16명, 라가에서 1명을 처형했다. 이는 최근 시리아, 이라크, 알제리 성전주의자들 12명을 암살한 모든 적에게 보낸 메시지다. IS는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해진 기자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Tel. (213)276-8959(찰리 정)**  
Puente Hills Hyundai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개그맨 강성범과함께하는 고베주얼매트 출시기념

# 사상최대 경품대잔치!

엘에이 한인타운 로텍스호텔에서 3일간 펼쳐집니다!!

## 진주보석재고정리 90%핵폭탄세일!!

고베주얼매트 1차 물량 완판 감사!! 2차 물량 출시 기념 2015년 새해를 맞아 15000불 상당의 경품을 마련했습니다!



2등 고베주얼매트 싱글

1등 고베주얼매트 퀸

- 1등 고베주얼매트 퀸 \$2999불 상당 (1명)
- 2등 고베주얼매트 싱글 \$2299불 상당 (1명)
- 3등 고베주얼매트 프로페셔널 \$1699불 상당 (1명)
- 4등 천연 옥매트 퀸 \$1299불 상당 (2명)
- 5등 자수정 인건사 매트 퀸 \$799불 상당 (3명)
- 6등 자수정 인건사 매트 싱글 \$599불 상당 (5명)

\* 행사기간중 고베주얼매트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에게 응모하실수있는 기회가있습니다.  
 \* 상품에 발생하는 SALES TAX 및 배송비는 당첨 되신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 행사 마지막날 2015년 1월 25일 일요일 추첨은 진행 됩니다.  
 \* 모든 경품행사 상품은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2015년형 고베주얼매트 출시!

뉴욕 첫출시 행사에서 전량매진 고베주얼매트!

온열매트계 루이비통!! '고베주얼매트'

### 고베주얼매트가 잠자리로 좋은 6가지 이유는?

1. 매트계의 '루이비통'으로서 가격은 시중가보다 최고 500불 이상 저렴하다.
2. 자수정 원적외선과 이온에 의한 윤택한 성 생활 등 섹시 아이콘으로도 손색이 없다.
3. 최고급 무자계 열선 등 최첨단 신소재로 전자, 수막파를 완전 차단한다.
4. 돌, 흙침대 보다 딱딱하지 않고 무겁지 않아 이사 및 이동이 간편하다.
5. 의료가기로서 한국 KFDA 승인에 이어 미국 FDA에도 등록을 했다.
6. 허리 통증, 당뇨병, 각종 부인병을 치료하고 자고나면 피부가 촉촉해진다.

고베 힐링 자수정 매트 (퀸사이즈)



2인용 일반가정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 침대위에 놓고 사용하시거나, 자수정 힐링대용 보료로 제작된 사이즈입니다.

KOBE HEALING MAT QUEEN  
SIZE: 1500 X 2000 cm  
WEIGHT: 30kg  
~~\$3499~~ **\$2999** +TAX  
본당기념 행사특가

고베 힐링 자수정 매트 (싱글사이즈)



1인용 일반가정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정내 개인이 사용하거나 힐링 힐링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있습니다.

KOBE HEALING MAT SINGLE  
SIZE: 1000 X 2000 cm  
WEIGHT: 17.7kg  
~~\$2999~~ **\$2299** +TAX  
본당기념 행사특가

고베 힐링 자수정 매트 (프로페셔널)



1인용으로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사이즈의 제품입니다.

KOBE HEALING MAT PRO  
SIZE: 700 x 1880 cm  
WEIGHT: 15kg  
~~\$2599~~ **\$1699** +TAX  
본당기념 행사특가

고베펄이 펼치는 '건강 100세, 이제 잠자리에 투자하자' 캠페인 "당뇨병, 요실금, 냉대하 등 부인병 확실히 잡는다!"

일본공법 한국세공 진주제품 5000여점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경제적이면서 화려한 천연양식진주 부터 최고급 품질의 아코야, 남양진주, 타히티 흑진주 등 4000여점의 진주보석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천연 자수정, 홍산호 아코야진주 등 2015 신제품 5000여점 대거 전시판매!

## 2014 고베펄 이월상품 재고정리 핵폭탄세일

인공핵진주, 천연진주 이월상품 목걸이 귀걸이 펜던트 비드목걸이 반지 브로치

# 50불부터 99불까지!



엘에이 한인타운 일정 안내

일시: 2015년 1월 23일(금) - 1월 25일(일), 3일간  
행사장소: 로텍스호텔 2층 특설매장  
ROTEX HOTEL 2nd FL Banquet (올림픽과 그래머시)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타제품과 비교를 거부하는 품질! 차원이다른 광고 및 영업지원!

고베주얼매트와 함께하실 지역 대리점 및 취급점 판매딜러 모집합니다.



KOBE PEARL LAS VEGAS

213.389.3887

카카오톡 문의 ID: KOBEINC

고베펄 온라인 스토어 WWW.KOBEPEARL.COM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 교회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하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이영**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후 1:45 심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믿음,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을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함의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요한 선교교회**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너 및 전단지)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매디칼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현연섭**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 Washington Blvd. LA, CA 90016  
T. (323) 428-7878 / F. (323) 932-0788 / luinholly@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서건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lakwpc.org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현호** 담임목사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회**  
블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Monitor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nghyun.org

**박부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박성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LA 선교교회**  
나 자신을 넘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나누며, 소망중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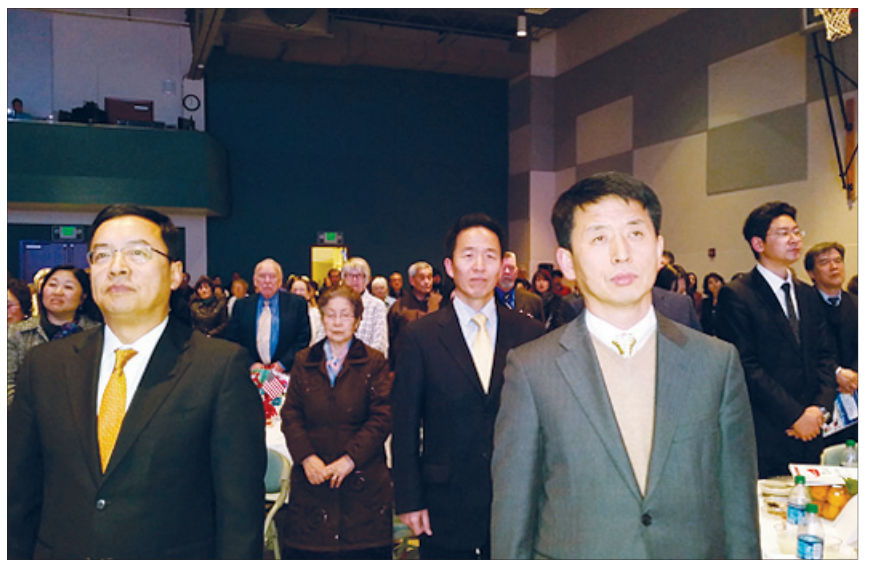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결중학교 / 토요새벽-171와 버몬트 코너-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LAS대(안학)교과외 리퍼트 코너-620 S. La Fayette Park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 배우고, 이민자들과 함께하며, 아픈 자들을 치유하며, 선교를 영혼을 살리는 곳

버질중학교 (171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6-2233 / www.LASarang.com

## 제 8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하 행사

한미 양국간 지속적 동맹과 우정 확인



권준 목사, 윤찬식 영사, 이정재 영사, 이수원 영사(맨 왼쪽으로부터)

제 8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하 행사가 13일(화) 형제교회(권준 목사)에서 브래드 오웬 워싱턴주 부지사,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 윤찬식 영사, 이정재 영사, 이수원 영사, 박서경 미주총영사, 미연합회장, 이수잔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장 등 서북미 지역 단체장, 미 주류사회 정치인 및 동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TV앵커 자넷 오 씨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권준 목사의 축복 기도, 서용환 대회장의 환영사, 문덕호 총영사의 박근혜 대통령 축사, 오광석 씨의 축가, 브래드 오웬 워싱턴주 부지사 기조연설, 조슈아 후리드 시장의 축사, 이수잔 축제재단이사장 축사, 박서경 서북미연합회장 축사, 샌드라 잉글랜드 준비위원장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웨리 송, 장용석 씨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축하 공연은 페드럴웨이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 공홍기)의 연주, 셋별 예술단(단장 최시내)의 공연, 물보라 합창단(단장 홍윤선의 합창 등이 이어졌다.

서용환 대회장은 환영사에서 워싱턴주 한인의 날은 한인들의 높은 역량과 평가를 통해 얻어진 값진 것이라며, 미국에서 최소 26개 주가 한인의 날로 제정되면 1월 13일은 연방 정부에서 한인의 날로 제정되어 미국 달력에 게재되기 때문에, 각 주에 한인의 날의 취지를 알려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한인의 날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덕호 총영사가 대독한 기념사에서 1903년 102명의 한인들의 하와이 첫 이주로 시작된 미주한인사회는 한 세기를 지나오면서 미국 내 모범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하였고, 고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으며, 작년 미

국 중간 선거에서는 18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당선되어 한인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한미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며, 화합을 통해 더욱 존경받는 커뮤니티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여러분이 미국 주류사회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이러한 특별한 기회에 우리는 미 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지속적인 동맹과 우정을 인정하고, 확인해야 하며, 두 나라 국민은 전세계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하고 안보와 지역 평화를 지키는 일에 60년 이상 희생을 나누고 보편적인 약속을 준수하며 서로 함께 해 왔다"며 미주한인들이 미국의 국격을 풍요롭게 해 온 것 등을 축하했다.

브래드 오웬 부지사는 "현재 2만5천여명의 한국 학생들이 워싱턴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37% 증가했고 특히 체리의 대한국 수출은 395%, 치즈는 430%가 각각 늘었다"고 말하고, 자신의 두 아들과 손자 4명은 한국에서 입양됐다고 소개했다.

문덕호 총영사는 축하 메시지에서 워싱턴 한인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워싱턴주 한인의 날은 한인 사회의 위상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주류 사회에 널리 알리고, 차세대에게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 주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균 기자

## 미션아카데미, 마틴루터킹데이 맞아 사랑나눔행사 동참



미션아카데미 회원들이 마틴루터킹데이 사랑나눔행사 봉사에 참가하고 있다.

미션아카데미(회장 제임스 송)에서 19일(월) '마틴루터킹데이'를 맞아 호세아 피드 더 헝그리(회장 엘리자베스 오밀라미) 재단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홀리스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나눔행사를 가졌다.

다케이터 소재 뉴라이프커뮤니티센터에서 3,000명의 어려운 이웃과 홀리스들을 초대해 4,000명 분의 따뜻한 음식을 나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가정에는 배달하기도 했다. 또 행사장에는 많은 단체와 봉사자들이 함께하며 음식 봉사뿐 아니라 음악공연, 옷나눔, 이발과 미용, 카이로프랙트, 직업 컨설팅 등을 제공해 훈훈하게 했다. 앤더슨 김 기자

오밀라미 회장은 김 목사의 정신을 되새기자고 독려하면서 "지금 이 땅 미국에 아직 4천만 명의 어려운 가정과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함께 살며,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한인들로 구성된 미션아카데미와 함께 7년 동안 함께 이런 귀한 일을 섬기고 있다. 이들이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다"라고 치하해 박수갈채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션아카데미 봉사자들과 더불어 1,300명의 봉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섬겼다.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2015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 뉴욕교협, 새로운 40년 시대 열어



뉴욕교협 2015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12일 오후 7시 퀸즈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가 12일(월) 오후 7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뉴욕의 목회자 및 평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열었다.

1부 예배는 이종명 목사의 사회로 최창섭 목사 대표기도, 이상호 집사 성경봉독, 뉴욕장로성가단 찬양, 이용걸 목사 설교, 박영진 장로 봉헌기도, 송병기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예배는 김재열 목사의 사회로 조애실 집사 애국가 제창, 랜디 브룩 미국가 제창, 이재덕 목사 신년사, 안창의 목사 만찬기도, 공로상 포상, 후원금 전달식, 뉴욕농아인교회 수화찬양, 김영환 테너 축가, 유진웅 뉴욕미션오케스트라단장 축주, 경품추첨 및 증정, 김종훈 목사 폐회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내빈 축사는 손세주 뉴욕총영사, 민승기 한인회장, 이병준 뉴저지교협회장, 이만호 뉴욕목사회장, 김춘규 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 등이 전했다.

이재덕 목사는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이 직전에 리틀백으로 회관을 이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 41회기는 성령이 이끄시는 화합과 소통의 교협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협력을 부탁했다.

설교를 맡은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교회는 '건강의 축복'(출15:2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용걸 목사는 이번 신년하례회에서 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병준 뉴저지교협회장은 "우선 뉴욕교협이 새 회관으로 이전한 것을 축하한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뉴욕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뉴욕교협이 뉴저지교협과 함께 감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했다.

이만호 뉴욕목사회장은 "새 회관을 준비하고 단장했는데, 이 회관에서의 활동을 통해 아주 풍성하고 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라며 회관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도 든든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새해에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김춘규 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은 "광복 70주년 분단 65주년인 해를 맞아 한국교회연합은 통일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과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100만인 기도운동을 발족했고 매일 1분씩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며,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로상 포상순서에서는 목회자 공로패를 한재홍 목사가, 목회자 감사패를 장경해 목사, 평신도 공로패를 이대연 장로, 평신도 감사패를 이주의 장로가 각각 수상했다. 또 뉴욕교협은 지난 한 달간 실시한 이웃사랑실천모금액을 20개 봉사단체에 전달했다. 김대원 기자

## 애틀랜타목사회

### 위상정립과 균형있는 회원구성

#### 베다니감리교회에서 월례회 열려



애틀랜타한인목사회 월례회에서 임원들이 특송을 하고 있다.

애틀랜타한인목사회(회장 신윤일 목사) 1월 월례회가 19일(월) 오전 11시부터 애틀랜타베다니교회(남궁전 목사)에서 열렸다.

1부 경건회와 2부 월례회, 3부 친교와 애잔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예배에는 2015년 신입 임원진들이 특송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남궁전 목사는 '에스라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7장 10절을 본문 삼아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관해 설교했다. 그는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른다"며 "성도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 하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에스라 프로젝트를 온 성도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경험을 나누며 도전했다.

제2부 월례회에서는 서기 나종욱 목사(하나로교회)의 회원 점령에 이어 목사회 회장 신윤일 목사(실로암교회) 사회로 안건토의를 했다.

2015년 목사회는 목사회의 위상정립, 균형있는 회원구성을 사역 방향으로 삼고 새로운 회원을 영입하는 데에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계획으로는 매월 월례회를 기본으로 목회자와 오늘의 교회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랑스런 목사와 성도들을 시상하는 한편, 목사회 활성화를 위한 탁구대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배 이후에는 애틀랜타베다니교회에서 준비한 애잔으로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2월 월례회는 새날 장로교회(유근준 목사)에서 모인다.

윤수영 기자

## O.C./앨버틴 지역

**오병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어평생찬양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 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GLMC) 주일 오후 12: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일룡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F. (714) 956-5845 / WWW.ROHTHE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늘옥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936-7038 / us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록)  
금요일 오후 7시(계시록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주일예배 장년1부 9:00am  
장년2부 11:00am  
Youth 예배 12:15pm  
Children 11:00am

EM 1:30pm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정철 담임목사**

**새생명한인교회**

15 Goddard, Irvine CA 92618  
T.(949)341-0022 / (949)398-7303  
www.newlifek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장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앨버틴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이승필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은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 삼강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미: 7:20 PM(성경 66권 특별성경공부)

새벽예배: 5:30 AM (화-금)  
6:30 AM (토)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새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하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생애로 인도 받으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사랑을 받으라!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a@gmail.com

주일 인타터 생방송들기 오전 6: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의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침례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일 낮 12:00-1: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침담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한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령예배 오후 2:30  
월요 신학교교 오후 7:30  
최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침례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복 박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주혁로 담임목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www.SuperMirapharm.com

#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100% 천연 면역조절제”  
“100% NATURAL IMMUNOMODULATOR”

##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에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600~~ **\$400** /1병 (한달분)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최근에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가 출시되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약값이 \$143,000입니다. 그러나 미라팜-22는 피부암은 물론 각종 암 치료제입니다. 한 달분 한 병 특가 \$400이며 임상 치료 효과도 더욱 높습니다.

### Mirapharm-22 복용 체험담 요약본

- (60대 남) - 대장암 말기로 1년6개월 동안 매일 혈변, 수술 일절 안하고 항암제도 전혀 안받고 오직 미라팜-22만 하루에 6알 복용. 그 후 암덩어리가 자주 빠져 나오기 시작, 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일절 혈변이 없어 한 달(11월7일)째임. 건강해지면서 피곤이 없어지고 식욕도 돌아옴. 저희 업소가 있는 물 안의 경비원으로 근무중
- (50대 여) - 쇼그렌증후군 7년이상 눈물, 침 분비가 안되는 불치병, 7년동안 삼성병원 치료받고 있어도 효과 전무함. 재력 충분하여 현대의학, 어떤 대체의학도 치료불가능 체험함. 미라팜 5알씩 복용 후 2주일쯤부터 편안한 느낌, 28일 후 침샘이 고임, 4개월 지나서 백혈구 수치 4000이 넘어 정상 회복됨. 과거 큰 사업들 다 접었는데 지금(11월7일)은 더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호전됨.
- (47세 여) - 구인외사로 얼굴 반쪽이 찌그러서 은행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니는 수가 없다가 3병 복용 후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은행에 다닐 준비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심.
- (9세 여 베트남) - 백혈병으로 고생 중 2병째 먹고 딱딱했던 두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지면서 회복 중. 어머니가 채널 57-1 베트남 TV 방송에 인터뷰 자청하심.
- (56여 베트남) - 몇 달 복용 후 목에 감상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암 세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26 남 베트남) - 날 때부터 자기면역 알러지 질환으로 피부가 갈라지는 난치병에서 미라팜-22를 이틀 먹고 즉시로 회복되어 건강해져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병원 닥터 16명과 3일간 미라팜-22 의약품 미팅을 가짐.
- (84세 여) - 만성숙환으로 인사불성에 장례준비하라 의사 권유에 미라팜 며칠 먹고 간호사도 놀라는 가운데 의식회복하고 곧 바로 손주와 직접 전화통화함.
- (60대 여) - 의료사고로 뇌사판정 후 장례 준비 권고 3회 받고 마지막 기회로 죽어도 좋다고 서명한 후 미라팜-22 선택. 위장관을 설치하여 위장에 넣고 18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함. 유튜브에서 "다사 미라팜" 을 검색하면 나눔
- (50대 여) - 한 병 드신 후 파킨슨병으로 고생 중 팔 움직임이 좋아졌다.
- (20대 여) - 한 달 후 생리불순 해결되었다.
- (70대 남) - 한 병 드신후 암 수술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검은 머리가 다시 난다.
- (50대 여) - 하루 3캡슐로 5일 복용후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 (50대 여) - 밤새 잠 못 잤는데 10일 후 편안하게 자면서 낮잠도 잔다.
- (60대 남) - 하루 5캡슐로 전립선이 많이 호전됐다.
- (50대 여) - 일주일 복용 후 머리 검은 후 화장실 바닥이 까맣게 될 정도로 빠진 머리가 한 올도 안 빠진다.
- (70대 남) - 전립선암, 대장암 수술 이후 다리 전체 절임이 줄어들고 식욕이 증가됐다.
- (50대 남) - 쓸개 수술 후 3년동안 하루 6번 설사가 이를 복용 후 멈추었다.
- (60대 남) - 신장투석 중 가려운 증세가 없어지고 인 성분이 툭 떨어졌다.
- (80대 여) - 각종 암 수술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한 병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되고 있음.
- (50대 남 외국인) - 대장암 환자. 미라팜-22를 2병째 먹고 대변 시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회복됨.
- (50대 여 외국인) - 체제가 유방암 수술 후 개발하여 미라팜-22 복용 후 6개월 만에 완치 관정받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5개국 미라팜-22 독점권을 신청하여 획득하고 현재 사업 중임.

(이상은 미라팜-22를 복용하고 체험받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한소망교회 김귀안 3대 담임목사 위임식

## 한 알의 썩어진 밀알 되겠다



한소망교회 3대 담임 김귀안 목사 위임식이 18일(주일) 한소망교회 예배당에서 PCUSA 동부한미노회 주관으로 개최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소망교회 3대 목사인 김귀안 담임목사의 위임식이 18일(주일) 오후 5시 한소망교회 예배당에서 PCUSA 동부한미노회(노회장 김진호 목사)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PCUSA 교단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뉴저지와 뉴욕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1부 예배는 김홍교 목사의 인도로 이춘기 목사 기도, 김유봉 장로 성경봉독, 한소망연합찬양대 찬양, 배현수 목사 설교, 남후남 장로 봉헌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담임목사 위임식은 김정문 목사의 인도로 이광희 장로(청빙위원장) 위임목사 추천, 위임목사 서약, 교우들의 서약, 위임기도, 김진호 목사(노회장) 위임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양춘길 목사가 권면, 허봉기 목사 축사에 이어 김귀안 목사가 답사했으며 김용주 원로목사가 축도했다.

이날 위임받은 김귀안 목사는 위임 소감을 말하면서 한 알의 썩어진 밀알이 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귀안 목사는 먼저 위임 과정과 관련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은 평탄하고 쉬운 길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깊은 절망의 구렁이 가시밭길 때로는 광야의 고독과 외로움으로 혼련

과 연단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아름답고 좋은 곳이 바로 이곳 한소망교회”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위임식에서 설교를 맡은 배현수 목사(워싱턴 소망장로교회)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사역 중에는 항상 무거운 짐과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지만 믿음의 경주자는 오직 끝인 지점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면서 “한소망교회를 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춘길 목사(필그림교회)는 권면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과 34절의 말씀을 들어 끝까지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것을 주문했다. 양춘길 목사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같이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되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 시애틀 형제교회 공동체 40일

##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 교회의 본질 회복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나누다



시애틀 형제교회 공동체 40일의 감사 (좌부터) 김형민 목사, 김진수 장로, 정한나 사모, 이재환 선교사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가 오는 2월 1일(주일)부터 3월 8일(주일)까지 6주에 걸쳐 공동체 40일을 진행한다. 형제교회가 매년 진행하는 공동체 40일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복음 안에서 굳건히 하는 시간이다.

올해는 ‘RE: CHURCH 40’이란 표어로 형제교회 전 성도가 40일 기간 동안 권준 목사의 신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를 교재로 주일예배, 순모임, 수요일예배, 프로젝트 등을 통해 건강한 예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권준 목사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천을 존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을 믿는다”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서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Re:Church 40일을 통해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결단하게 될 것”이라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고 알아가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동체 40일은 교회의 본질 회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립할 예정이다. 또한 “다시 부르신 앞에 서자”, “믿음으로 이기자”,

“언어의 품격을 갖자”, “공활을 흘려 보내자”, “거룩한 삶을 살자”, “하나님의 교회가 되자” 등을 주제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회는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이 임해야 한다”며 “우리가 건강한 교회임을 고백하고 세상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동체 40일은 세상과 분리된 교회가 아닌, 세상 속의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정립할 것”이라며 “교회는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동체 40일 강사로는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와 더불어 김형민 목사(달라스 텐톤한인침례교회, 골든게이 트침례신학대 교수), 김진수 장로(뉴저지 세빛교회, 프린스턴신학대 이사), 정한나 사모(남가주광명교회, 꿈땅비전센터 대표), 이재환 선교사(COME MISSION 대표) 등 이 시대 크리스천 리더들을 초청해 복음을 향한 삶과 간증을 듣게 된다.

김영권 기자

###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8: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Blv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 선의와 의인 모두에게 믿을 교회는(마5:45)  
1. 민족을 넘어서 2. 산업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말씀강제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아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pc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일민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중부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명월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다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M,월,년), 5부예배 오후 3:00(M,월,년)  
장어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지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일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수,금), 오후 12:00(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목요일양예배 오후 8:00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1부예배 오전 9:45, 주일예배 오전 11:00, 유초중부(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구약모임 매월 1회, 한글학교(매월) 오전 10:30  
**조인 담임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 제6차 사랑의 쌀 나눔운동 후원내역

사랑의쌀나눔운동을 후원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 교회후원

가나다순  
단위: \$

가주세계선교교회(김선국목사)	100
나성주님의교회(정삼희목사)	200
나성소망교회(김재울목사)	500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목사)	2000
나성중부교회(김호목사)	50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목사)	1,000
동부사랑의교회(박승규목사)	100
목자교회(김동술목사)	100
물댄동산교회(백종윤목사)	100
미주베델교회(정요한목사)	200
미주예문교회(심진구목사)	100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목사)	2,000
성복교회(추창효목사)	100
애틀랜틱밸리인교회(박정일목사)	200
올리브교회(김창현목사)	200
올리브나무교회(박병구목사)	200
주님의 마음교회(오경탁목사)	200
주안예교회(최혁목사)	15,240
주찬양교회(진석호목사)	100
창대교회(이준준목사)	300
풍성한교회(박효우목사)	1,000
하늘영광교회(차권희목사)	100
L.A 열린교회 (신석근목사)	200
L.A 창대교회(정홍이목사)	100
True Voice교회(박현동목사)	150
UBM 교회(김앤드류목사)	500
<b>총계</b>	<b>25,040</b>

## 단체후원

가나다순  
단위: \$

국제오네시모선교회(대표 박상구)	100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1,000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김영균)	500
라파선교회(문재성목사)	200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김춘식)	1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회장 최재현)	300
벨리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곽덕근)	200
벨리원로은퇴목사회(회장 문광현)	100
샌버나디노 교회협의회	100
예수사랑선교회(대표 조병국)	100
월서은행(월서지점)	150
재미대한 LA 체육회(회장 신동화)	200
재향군인회 서부지회(회장 박흥기)	100
종교평화협의회	1,400
크리스천비전(사장 이정현)	50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미주총회(류당열)	300
항아리바지락칼국수	100
3K Fashion USA Inc.	100
Cherish Apparel, Inc	300
Digital Fashion Academy	100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2,000
John C. Ye 변호사 그룹	500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A (회장 정동철)	200
L.A 전도대학(진석호목사)	100
Law Offices of Leslie G Donaldes	200
Rohthem Inc	300
SANG AM & ASSOCIATES, INC	1,000
Sun Flower. Inc	500
Toska	200
Tres Bien Clothing, Ing	300
Woods & Yoo 변호사 그룹	400
Zone Enterprises, Ins	500
<b>총계</b>	<b>12,150</b>

## 개인후원

가나다순  
단위: \$

강병찬(기독교서적센터)	200	이경희	150
강윤식(프론티어)	50	이광영	200
강일환	500	이방걸/혜령(Lee & Lee CPAS)	2,000
공태용(Terry & Friends Inc)	200	이병만(Cmobile)	3,000
구승환(Super Mercado Latino)	500	이석원	150
구자형	200	이성근/사라	100
길태우(Be Cool)	100	이승철(Tintype, Inc)	500
김경일(Meineke Econo Lab)	500	이신재(One ten electric)	100
김사라	1,000	이영일/혜숙	450
김승환	100	이춘희(춘희미용실)	300
김영갑(Welkin Sound Inc)	300	이태환	50
김영광/영숙	100	이현경	100
김용수/규실(Amway)	300	이희성(전주바울교회)	300
김용우(NTE)	50	이희숙(영엔젤스어린이합창단)	200
김우남	50	임훈/화연	1,000
김인수(미주장로회신학대학 전총장)	200	전경숙	100
김재동/정혜(NENE APPAREL INC)	500	정민숙(Oscar's Snack Shop)	100
김제니 권사	200	정인섭/경화(Sweet Factory)	200
김종훈	200	정재덕	100
김준형	20	정택상	100
김진경/장지영(Joy 153)	800	조원용(Ola Mari, Inc)	100
김창수	100	조은순	100
김창호(크리스천 헤럴드)	100	조재형(Countess)	100
김호식	100	최기준(Toska)	200
김황희	200	최학량	50
다니엘	50	추준호	50
무명	200	케빈 허(Eleven Star, Inc)	300
문광현	100	크리스틴 정(United Escrow)	300
박선우(Shin Sang)	100	하재봉	100
박정웅	40	Betty K. Oh	50
박준형	100	BIHO CHA CPA	200
배부전(미주통일신문)	10	Chong S. Choe	100
서영민	10	Dr. Kwak Yonsel Dentistry	100
손민수	50	Edward J. Chong	100
심종섭	100	Evan Yoon	20
안덕문/경숙	200	Justin Yoon	20
안세라	100	LA Maintenance & Painting	200
오성태(Cal Top)	100	Moa Collection	10
오찬국(천사보석금)	500	Mr.임(Wonny Trim)	100
위재국	100	Silk Road	20
윤 라이언	20	Stella Son	300
윤상현(YRI Pool Service)	2,000	(SK Financial Solutions Corp)	300
윤영섭(Scott & Jean, Inc)	200	Susie Hwang(X-Press Cleaner)	50
윤종화	200	Tae U. Park	300
<b>총계</b>	<b>22,820</b>		

## 제 6차 사랑의쌀나눔운동 후원금 중간정산 (1.17.15 기준)

교회후원	25,040
단체후원	12,150
개인후원	22,820
<b>총 후원금액 (후원약정)</b>	<b>60,010 (5,500)</b>

\*사랑의쌀 나눔운동은 계속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기간: 2015년 1월 31일까지 접수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Pay To Order : CKCSC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6  
"사랑의쌀 담당자 앞"

공동주최: 한국일보, 라디오코리아, 남가주한인목사회  
주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el : 323-735-3000 Fax : 323-735-3111  
Email:koreanchurch981@gmail.com  
Website:scalckc.org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 이슬람교도 레자 아슬란의 예수론 비판 (5)

I. 방법론적 오류: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의 분리

II. 이슬람은 신약성경의 고유한 텍스트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III. 이슬람은 역사적 예수를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한다

1. 이슬람의 왜곡: 네 복음서는 로마의 지적 엘리트층을 위하여 예수의 혁명가적 흔적을 제거

2. 정치 혁명가 가설을 복음서 해석에 투영·날조

이슬람의 접근방식은 역사적 예수를 철저히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는 복음서 기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왜곡했다고 보고, 이를 제거하고 혁명적인 투사에 적합한 자료들을 조합하여 예수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슬람에 의하면 1세기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숭한 침략과 핍박의 역사 속에서, 과거의 예언을 실행하기 위해 메시아를 자처하는 리더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봉기했다. 예수는 그들 메시아적 리더 중에서도 단연 카리스마가 넘치고 정치 혁명적이었다고 본다. 예수는 로마 권력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나, 그의 메시지는 종교가 되어 로마 권력을 삼켰다고 본다. 절대 굴복을 모르는 의지, 하나님의 나라가 기어코 오리라는 열정적인 신념. 이것이 젤롯(zealot)이라는 것이다.

이슬람은 젤롯이 열심당(The Zealot Party)과는 다르다고 한다. 열심당은 예수가 죽고 난 뒤인 기원후 66년에 생겨난 당파라고 본다. 예수가 살아 있는 동안 '열심'이라는 말은 특정 분파나 정치적 당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고, 이때만 해도 '열심'은 사상이나 포부 또는 종교적 경건의 모범이었다고 본다. 아슬란은 예수가 그 당시 사회에 널리 퍼졌던 '젤롯'의 신념을 간직한 정치적 혁명가였다고 주장한다.

3. 두 가지 반론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나사렛 예수는 결단코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나 정치 혁명가로 이해하지 아니했다. 필자는 예수가 '젤롯' 신념을 가진 혁명가였다는 아슬란의 해석에 대하여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아슬란이 말하는 젤롯당의 연대(年代)는 일반신약학자들의 연대와 빗나감

첫째, 개인 신념인 젤롯과 정치적 당파인 젤롯당(Zealots)을 구별

하고 젤롯당은 66년에 생겨난 당파라고 보는 아슬란의 견해는 일반 신약학자들의 견해와 빗나간다. 스위스의 신약학자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 등을 비롯한 복음주의적 신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열심당(젤롯당)은 유대 백성의 법률과 그들 고유의 생활에 대한 열렬한 수호자들로서 헤롯 시대부터 예루살렘과 맞사다 요새 반란까지 호전적이고 광신적인 전투당이었다. 열심당이라는 이름은 원래 종교적 광신주의(religious fanaticism)를 의미하였고, 주전 2세기 마카비 반란 시대에는 우상숭배자와 우상에 대한 유대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유대 율법학자 랍비의 율법을 엄격히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헤롯(Herod the Great, BC 37- BC 4)의 통치가 로마 권력에 동조한 반민족적 행위라고 규정하는 정치적 집단으로서 열심당의 결성을 촉진시켰다. 헤롯을 왕으로 부르도록 강요하는 어떠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에 반대했던 자들, 히스기야(Hezekiah)와 소위 강도의 무리들(robbers)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실상 열심당이였다(Oscar Cullmann, Jesus and The Revolutionaries, Gareth Putnam, 1970; 고범서 역, 『예수와 혁명가들』 “범화사, 1984, 부록: “열심당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76-78).

열심당은 당시 유대의 지배자였던 로마에 대하여 무력으로 항거하고 로마에게서 유대를 해방하고자 전쟁을 준비했다. 열심당은 로마 군병들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동조 혐의가 있는 동족에게도 비수를 휘둘렀다. 로마에 협조한 사람들을 하나씩 암살한 후에 그들은 전 백성을 66년의 대전쟁으로 몰아넣었다”(André Trocmé, Jesus et la Revolution non Violente; 영역, Jesus and the Nonviolent Revolution, Wipf & Stock Publishers, 1998; 박혜련, 양명수 공역, 예수와 비폭력 혁명,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207.)

2) 아슬란의 혁명가 예수 주장은 이미 1960년대 제기되어 폐기된 해방신학자의 견해

둘째, 역사적 예수는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라, 영적인 혁명가요, 종말론적 선포의 메시아였다. 예수가 정치적 혁명가였다는 아슬란의 주장은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서구에서 이미 18세기에 라이마루스(H. S. Reimarus, Von dem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Zwecke Jesu und seiner Jünger, Fragmente eines Ungenanten, vol 7, 1778. 이 저서는 너무나 급진적인 내용이라서 박해가 두려워서 생전에 출판을 못했다. 라이마루스 사후에 그의 딸이 부친의 원고를 레싱(Lessing)에게 주어 익명으로 출판케 한 저서임)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그 후에는 카우츠키(K. Kautsky)와 아이슬러(R. Eisler), 그리고 1960년대 영국의 신약학자 브랜덴(S. G. F. Branden) 등 해방신학과 혁명신학에 심취한 학자들에 의하여, 그리고 한국에서는 1970년대 안병무와 서남동 등을 비롯한 민중신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이다.

스위스 복음주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은 “예수가 정치적 혁명가”라거나 또한 열심당의 동조자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이란 “예수의 종말론적 선포의 테두리 안에서는 도출될 수 없다”(O. Cullmann, 『예수와 혁명가들』, 서문, 13.)고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미국의 신약학자 존 라빈슨(John A. T. Robinson)도 쿨만의 소책자 『예수와 혁명가들』 추천사에서 쿨만의 입장에 동의한다: “나는 권위있는 신약학자에게서 제기되는 이 입장은, 예수를 정치적 혁명가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최근의 무모한 시도에 반대하여 제기된 균형잡힌 평가라고 환영한다. 예수는 참으로 혁명가였다. 그러나 정치적 혁명가는 아니었다.” 같은 신약학자 쉰(Fulton I. Sheen)도 다음과 같이 쿨만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 “나는 혁명가다 그러므로 예수도 혁명가라는 주장에서 출발하는 자들은 쿨만에게서 칼(swords)이 이웃보다는 자신을 가르키는 극단주의(radicalism)를 발견할 것이다.”

독일 튀빙겐 신약학자 마르틴 헝겔(Martin Hengel)도 그의 논쟁적 저서 『예수는 혁명가였는가?』(War Jesus Revolutionär?)에서 예수를 열심당 운동과 관련시키는 시도에 반대하면서, 예수는 평화와 비폭력의 메시아를 전했다고 주장한

다. “예수는 아가페(Agape)를 가지고 아주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비폭력적인 항거와 가까이 고통을 감수하는 방법, 곧 낡은 야만적인 폭력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명칭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이다”(Martin Hengel, Was Jesus a Revolutionist?, 고범서 역, 『예수는 혁명가였는가?』 (서울: 범화사, 1983, 60). 헝겔은 누가복음 6장 27절-37절과 마태복음 5장 38절-48절에 나타나는 예수의 선포에서 “예수의 방법은 개인의 양심에 주로 초점을 맞춰 개별적으로 호소하는 비폭력적인 설득과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도움의 방법이다”(Martin Hengel, 『예수는 혁명가였는가?』, 56.)고 말한다.

미국의 진보신약학자 월터 윈크(Walter Wink)는 그의 저서 『예수와 비폭력 저항: 제3의 길』(Jesus and Nonviolence: A Third Way)에서 예수는 “악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수동적인 태도와 폭력 모두를 몹시 싫어하셨다”고 지적한다(Walter Wink, 김준우 역, 『예수와 비폭력 저항: 제3의 길』,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3, 31). 예수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태도로, 즉 수동적인 위치에서 운명적인 굴레에 얽매여 사는 삶이나 폭력적이고 감압적인 억압에 대하여 투쟁하면서 그 폭력에 대항하는 혁명가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 다가오는 폭력에 대하여 적의로 공격하지 않으시고 제3의 길, 평화의 길을 제시하셨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는 잘못을 범한 형제에 대하여 용서하되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고 가르치셨다.

아슬란이 말하는 젤롯당의 연대(年代)는 일반신약학자들의 연대와 빗나간다. 아슬란이 개인 신념인 젤롯과 정치적 당파인 젤롯당을 구별하고 젤롯당은 66년에 생겨난 당파라고 보는 견해는, 일반 신약학자들의 견해에 빗나간다.

일반적으로 신약학자들은 열심당원이 유대 백성의 법률과 그들 고유의 생활에 대한 열렬한 수호자들로서, 헤롯 시대부터 예루살렘과 마사다 요새(要塞) 반란까지 호전적이고 광신적인 전투당이었다. 아슬란의 혁명가 예수 주장은 이미 1960년대 제기되어 폐기된 해방신학자의 견해다.

역사적 예수는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라, 영적인 혁명가요, 종말론적 선포의 메시아였다.

IV. 정치 혁명가 예수는 복음서 예수상과 전혀 다른, 낯선, 날조(捏造)된 인물

이슬람은 그의 예수 전기에서 그 자신이 설정한 “갈릴리를 배회하던 젤롯(열망)을 가진 민중 혁명가의 이데올로기”를 투영하여 복음서에 증언된 고난의 종이자 세상의 구주 예수를, 전통교회가 신앙고백한 역사적 예수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복음서와 전통교회가 신앙고백한 역사적 예수인 “고난의 종이요 세상의 구주”란 초대교회가 날조한 인물이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정치 혁명가가 역사적 예수의 본래 모습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1. 복음서 기자와 다른 전혀 다른 인물: 정치적 혁명가 날조

이슬람의 예수상은 복음서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역사적 예수를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기보다는, 논픽션적으로 문예창작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나사렛 예수를 복음서들이 알려주는 인물과는 전혀 다르고 낯선 인물인 정치적 혁명가로서 날조(捏造·fabricating)하고 있다. 아슬란은 머리글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이 책은 실존 인물로서의 예수, 즉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의 예수의 모습을 되돌록 많이 찾아내기 위해 기획되었다. 바로 정치의식이 투철한 유대혁명가로서의 예수다. 그는 2천년 전 갈릴리 시골 지역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아다니는 인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추종자들을 끌어모아 메시아 운동을 펼친 인물이다. 도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배짱있게 성전을 공격했으나 선동죄로 로마에 체포당하고 처형당했으나, 결국 그의 활동은 실패로 끝난 셈이다.”(Reza Aslan, Zealot. 민경식 옮김, 『젤롯』, 29-30).

이에 반해서 복음주의 신약성서학자 이반스는 그의 저서에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역사적 예수상이 실제의 참 예수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해낸 상을 그의 연구에 투영시킨 ‘만들어진 예수’(fabricating Jesus)”라고 지적하고 있다(Craig Evans, 성기문 옮김, 『만들어진 예수』. 누가 예수를 왜곡하는가, 새물결플러스 2011, 275-298.). 그리하여 역사적 예수의 사실과 진실과는 전혀 다른, 혁명가 예수를 날조하여 내놓고 있다.

(계속)



▲콧물빼기 시럽으로 환자가 치료 받는 모습

# 비염, 축농증 지긋지긋한 콧병 치료는 콧물빼기 치료가 해답!



항상 코가 막혀있고 아침이면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비염과 코막힘으로 냄새도 못 맡는 환자

체험사례1 9세 여아

콧물빼기를 하니 너무 많은 코가 빠져 나왔다. 환자가 침을 맞으려 하지 않아 발효 한약인 '코편해환'을 복용하면서 1주일에 두번씩 치료를 받았다. 치료 5번이 끝난 후, 환자 부모가 "이젠 저녁에 잠을 잘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 숨을 쉰다"면서 너무 좋아했고, 10번이 끝나자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체험사례2 여대생

어릴 때 부터 잠을 잘 때 입으로 숨을쉬다 보니 아침이면 입이 말라 많은 고생을 했다. 1주일에 두 번씩 내원, 콧물빼기와 침 치료를 병행했고 6번 치료후엔 자신도 모르게 코로 숨을쉬면서 자게 됐다. 그래도 완전히 고치겠다고 15번정도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엔 코로 숨쉬는 것이 너무 좋으면서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했다.



# 복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 흔들리며 걷는 길

김기석 | 포이에마 | 352쪽

목회 30년 만에 일상을 벗어나 40일간 이탈리아, 터키, 조지아, 아르메니아, 프랑스 등의 수도원과 교회, 미술관을 다니며 하나님과 세상과 공동체를 만난 기록을 담았다. 일기처럼 써 내려간 글에서 그는 떠남을 통해 참으로 편안해진 자신의 삶과 생각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불온함'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한 그의 모습이 사진과 함께 선명하다.



#### 목상, 하나님과의 교통

존 제퍼슨 데이비스 | CLC | 264쪽

지난 40여년간 고든 콘웰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며 상징적·영적 해석학의 중요성을 강조, 북미권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 중 한 사람으로 꼽힌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영역인 '성경 읽기'에 대해 썼다. 단순한 읽기를 넘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권준 | 두란노 | 2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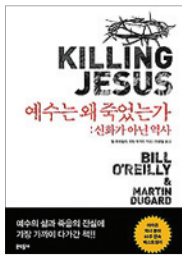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님은 건물과 장소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 오셨다. 야고보 사도가 1세기 크리스천을 향해 "믿음대로 행하는 크리스천, 긍휼을 흘려 보낼 줄 아는 크리스천, 세상에 빛으로서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듯, 저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를 동일하게 받아들여 진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 예수는 왜 죽었는가

빌 오라일리 · 마틴 두가드 | 문학동네 | 340쪽

원제는 'Killing Jesus', 풀어 쓰면 '예수를 죽이다'라 할 수 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갈등과 모순 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역사도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고정관념처럼 굳은 '종교화된 예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한다. 가톨릭 신자인 저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의 헌신과 저항을 그려내려 한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대로 읽힐 지는 미지수.



## REVIEW

### 한 노(老)교수가 '신학'의 눈으로 읽은 '레미제라블'

인간에 대해, 삶에 대해, 사랑에 대해, 자유에 대해, 죄와 구원에 대해 배우고 깨닫게 해

2012년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 큰 인기를 끌었다. 사람들은 당대 정치상황과 함께 '혁명'이라는 메시지에 열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어령 박사는 양화진문화원 목요강좌에서 "한국에서 '레미제라블'의 빅토르 위고를 오독(miss reading)하고 있다"며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흥분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열기를 보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 생명을 우리가 가장 많이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영화관에서는 '사랑'이라는 큰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소설 '레미제라블'은 전 5

권에 이를 정도로 분량이 방대할 뿐 아니라 내용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에 신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한남대에서 31년간 재직하다 퇴임한 이문균 교수가 '레미제라블'에서 인생과 고통, 사랑과 구원 등 10가지 주제를 뽑아 <레미제라블, 신학의 눈으로 읽다>를 펴냈다.

"사람들은 '레미제라블'을 읽고 각자의 관점을 따라 해석합니다. 해석은 독자에게 열려 있으니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원래 어떤 의도를 갖고 썼는지를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레미제라블'은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고, 기독교



레미제라블 신학의 눈으로 읽다 이문균 | 가이드포스트 | 312쪽

교의 가르침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저자 빅토르 위고는 이 작품을 15년

걸려 완성했고, 사실상 생애 전체를 이 작품에 쏟았다고 한다.

그는 위고의 의도에 대해 "독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기를 원했고, 그들의 고통이 큰 만큼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는 그런 바람을 담아 자신의 소설에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켜 비참한 세상에 드러난 숭고한 아름다움을 보여줬고, 어둠 속에 추락한 한 영혼이 빛에 감염되면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려 했다"고 평가했다.

이문균 교수는 "레미제라블'에는 수많은 보석들이 곳곳에 박혀 있

니, 찬찬히 읽으면서 여기저기 숨어 있는 보석들을 발견해 보라"며 "인간에 대해, 삶에 대해, 사랑에 대해, 자유에 대해, 죄와 구원에 대해 배우고 깨닫는 즐거움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레미제라블 읽기'의 좋은 안내서이자, 쉽게 쓰여 불신자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좋다.

그는 장발장이 코제트와 마리우스 부부에게 전한, 다음과 같은 유언으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이제 나는 떠나야겠다. 항상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거라. 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외의 다른 것은 별로 없다."

이대웅 기자

## 성화 특별 기획전

크리스천이라면 가정에서 하나쯤은 꼭 소장하고 싶은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 성화를 특별 할인판매 합니다. 교회 임직자들 선물용으로, 교회에 하나쯤은 꼭 비치하면 좋습니다.



### 성화특별기획전

- 18×36 - \$ 200
- 19×27 - \$ 150
- 27×39 - \$ 200
- 12×20 - \$ 60
- 6×8 - \$ 30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문의하세요  
문의 기독교일보 T) 213-434-1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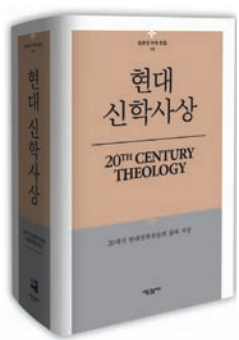


## 20세기 신학자들의 삶과 신앙의 고뇌를 담아낸 현대신학의 바이블!

김균진 교수, 한국 교회 목회자, 신학생,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의 마음 담아내

## 본회퍼가 떠난 지 70년 그의 글로 시작하는 하루

본회퍼의 글과 함께 1년을 살게 하는, 두 권의 묵상집



현대 신학사상  
김균진 | 새물결플러스 | 1120쪽

본서는 원래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출판된 '20세기 신학사상' 제1, 2권(2003, 2012)을 새물결플러스에서 새롭게 수정, 보완하여 '현대 신학사상'이란 제목으로 다시 출판한 것이다. '현대(modern)'라는 용어가 근대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 '현대신학'은 특별히 20세기 신학을 가리킨다.

기존의 내용에 '한국의 민중신학', '여성신학과 생태여성신학', '자연과학과 신학의 만남' 등 3개의 장을 추가하여 책의 깊이를 더하였고, 처음 출판되었던 목차와는 달리, 24개의 장을 크게 5개의 부로 정돈하여 내용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기 쉽게 하였다.

20세기 현대 신학사상들은 추상적인 신학 논쟁의 산물이 아니라 일련의 신학자들이 그 시대의 문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타당성을 제시하려고 했던 신학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수많은 신학사상들을 접하면서 간혹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신학사상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 이것과 우리의 구원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신학사상을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신학사상을 전부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신학사상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보다 폭넓고 깊은 전망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신학사상도 완전하지 않고 절대적일 수 없다.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돌메갱이처럼(곧 하나의 교리 체계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 그 자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신학사상을 추종하기보다 나 자신의 관점에서 내가 취해야 할 신학적 입장

이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의 입장을 절대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언제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가 더 적절할 것이다.

국내외의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신학자들은 20세기의 다양한 신학사상들을 하나의 논쟁으로 폄하하면서 자신들이 옹호하는 "복음주의신학"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한다. 물론 학문 세계에서 비판과 논쟁은 필수적이다. 비판과 논쟁이 없다면 그 학문은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의 신학사상들은 혹자의 비판처럼 단순히 논쟁에 논쟁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 신학자들이 그 시대의 문제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타당성을 제시하려 했던 신학적 노력의 산물이다.

'현대신학사상'은 50년간 옹골케 신학 연구에 정진해온 김균진 교수가 목회자의 마음으로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생,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쏟아내는 현대신학의 지침서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격변기라고 일컫는 20세기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신학사상과 진술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 김균진 교수는 다른 관련 서적들과 달리, 현대 신학사상에 대한 주관적 인상이나 해석을 자제하고 내용 자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현대신학자들의 사상을 만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 결과 읽기에 좀 딱딱한 인용문이 기록된 문단들이 간혹 발견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신학에 대해 낯선 독자들도 각 장 마지막에 요약된 다양한 신학사상의 공헌과 문제점, 평가와 해석 등을 읽다보면, 필자의 균형있는 시각을 배우고 신학적 사고와 비판력을 함양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저자 김 교수는 본서가 우리의 신학적 사고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정의가 이 땅위에 세워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씨름하며 신학적 사고와 답변을 얻고자 애쓰는 모든 목회자와 신학생, 그리고 성도들의 손에 이 책이 들려져서 저자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서는 크게 5부로 돼 있다. 제1부는 현대신학의 시작과 형성이라는

제하에, 칼 바르트의 변증법적 신학, 에밀 브루너의 기독교적 자연신학, 볼트만의 실존신학과 제자들의 신학, 20세기 초엽의 다른 신학 운동들, 20세기 전반기의 신학적 해석학 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제2부는 현대신학의 확장 and 전환이라는 제하에, 본회퍼의 기독교의 비종교적 해석, 세속화 신학과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폴 틸리히의 존재론적 신학, 오스카 쿨만의 구원사 신학, 판넬베르크의 보편사 신학,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등을 접하게 된다.

제3부는 20세기의 상황신학들이라는 제하에, 메츠, 몰트만, 쥘레의 정치신학,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아메리카의 흑인신학, 여성신학과 생태여성신학 등을 만나게 해준다.

제4부는 타 학문과 신학의 만남이라는 제하에, 과정철학과 과정신학, 포스트모더니즘과 신학의 만남, 포스트모던 신학으로서의 구성신학, 자연과학과 신학의 만남을 두루 섭렵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에큐메니컬 신학이라는 제하에, 20세기 가톨릭 신학, 20세기 에큐메니컬 신학, 종교신학 등을 빠짐없이 주시할 수 있게 해 준다.

저자 김 교수는 헤겔과 칼바르트 연구를 시작으로 몰트만과 본회퍼, 틸리히의 신학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현대신학 사조들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조직신학 시리즈를 집필함으로써 대단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도 했다.

한편, 저자 김균진 교수는 부산상업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목회 소명을 받은 후,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M. A.), 독일의 튀빙겐 대학교에서 몰트만 교수의 지도로 신학박사 학위(Dr. theol.)를 받았다. 1977년부터 2009년까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헤겔철학과 현대신학'(대한기독교출판사), '헤겔과 바르트'(대한기독교출판사), '종말론'(민음사), '생명의신학'(연세대학교 출판부), '기독교신학1,2,3,4,5'(새물결플러스) 등과 역서로 '본회퍼의 사회윤리'(향린사), '신학의 미래1,2'(향린사) 등이 있다.

이영인 기자



본회퍼

은 삶의 특정 순간 얻은 것이다. 따라서 인식은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썼다. 본회퍼의 글을 발췌해 엮은 만프레드 베버(Manfred Weber)는 이에 대해 "삶을 통해 얻은 인식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섞어 배열했을 때, 본회퍼 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베버는 책이 소개하는 365일의 하루 하루 제목을 '디트리히 본회퍼 작품전집(Dietrich Bonhoeffer Werke)'의 원문에서 하나하나 따 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 ◆본회퍼 묵상집

1991년 나와 2004년 출간된 책이 10년만에 개정판으로 나왔다. 그의 글을 엮어낸 호주인 찰스 링마(Charles Ringma)는 호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필리핀과 호주 원주민들을 섬겼다. 지금은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대학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링마는 "본회퍼는 성경적 영성을 정치적 현실성과 결합했고, 믿음을 순종과, 평화를 저항과, 공동체를 소탈한 개인주의와, 기도를 행동주의와 각각 결합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매일 말씀 구절을 제시하고, 본회퍼의 짧은 글과 엮은이의 간략한 해설을 읽은 후, 사색과 묵상 또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장을 넘기면 '삶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 '그리스도: 타인을 위한 사랑', '값싼 은혜', '급진적인 예수', '고난에 직면하기' 등 낱신 제목들이 계속 등장한다. 독자들의 1년을 결코 느슨하게 만들지 않을 것 같다.

이대웅 기자

올해는 우리에게도 광복 70주년, 독일과 일본 등에게는 '패전 70주년'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막바지, '천재 신학자'이자 '그리스도인, 동시대인'이었던 디트리히 본회퍼도 독일의 히틀러에게 희생당했고, 그가 떠난 지 70년째가 됐다. 이러한 2015년을 앞두고, 그가 남긴 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도서 두 권이 발간됐다.

### ◆본회퍼와 함께하는 하루

디트리히 본회퍼 순교 60주년(2005년)과 탄생 100주년(2006년)을 기념하면서 그의 묵상과 설교, 연구서, 편지, 기도문과 시, 비망록 등에서 영성이 담긴 글들을 새롭게 독특한 방법으로 엮은 책이다. 부제 '이 날들을 그대들과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는 1944년 말 감옥에서 쓴 '선한 힘들에 감싸여(12월 31일 수료)'에서 따 왔으며, 원서 제목이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1935년 '인식



본회퍼와 함께하는 하루  
만프레드 베버 편저  
홍성사 | 401쪽



본회퍼 묵상집  
찰스 링마 편저  
조이선교회 | 416쪽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가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약한암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체중)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이전엔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수만종의 당뇨병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병 개선제입니다.

###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광생물 연구가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능하다. 새로운 당뇨병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계기 송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 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중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

월 북어구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7.99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밥(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떡볶이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가스 치킨데리야끼 갈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인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개월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튼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Genesis 2014 3.8** ALL IN STOCK @ \$36,120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 한국교회, 천국과 지옥 넘어 '성화' 강조해야

## 한국기독교문화유산보존협회 설립 감사예배 및 사업설명회

##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회개와 영성회복 세미나' 진행돼



기독교 문화 유산을 보존하려는 한기문의 설립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기독교의 문화유산을 수집 및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문화유산보존협회'(총재 이태희 목사, 이하 한기문)의 설립 감사예배 및 사업설명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기문은 설립 취지에 대해 "한국 기독교가 남긴 고귀한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존 및 계승하는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과거와 현재를 잇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 △학술강연 및 발표 △학술지·회보·잡지 발행 △조사 연구와 학술활동 △타 문화유산 단체와의 국내·외 교류 △정부·지자체·국제기구·공공기관 등에서 문화유산 관련 수탁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영남 목사(상임부총재)의 사회, 나학수 목사(설

립자 대표, 광주겨자씨교회)의 대표기도, 맹연환 목사(법인 임원)의 성경봉독, 이영훈 목사(운영이사장,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설교, 이만신 목사(법인 고문)의 축도로 드렸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딤후 4:9-13)을 제목으로 설교한 이영훈 목사는 "기독교 역사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자랑했다. 우리들도 기독교의 역사·문화를 보존해 후손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자"고 전했다.

이어진 2부 기념식은 장순진 목사(수석상임회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이태희 목사(법인 이사장)의 인사말, 강문호 목사(대표회장)의 환영사, 감사패 및 위촉장 수여, 격려사, 축사 및 축사, 특별기도, 전영규

목사(총괄본부장)의 광고로 진행했다. 이태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130년이 된 한국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 복원하고 신앙 선진들의 발자취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오관석 목사(고문, 하늘비전교회 원로)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숨은 노력 속에서 한기문이 탄생할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 격려사를 대신했다. 김진호 목사(고문, 도봉감리교회 원로)도 "기독교 문화 유산은 우리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며 땀과 피를 흘린 흔적이다. 이를 잘 보존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격려했다.

김경철 장로(CTS기독교TV 회장)는 축사를 통해 "기독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한기문의 설립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라며 "귀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한기문이 이를 위한 역사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 밖에 정근모(고문, 전 과거처 장관)·이필섭(고문, 전 합참의장) 장로가 격려사를, 변남주 목사(고문, 예장 합동 경경총회장)·이혜훈 전 국회의원이 축사를 각각 전했다. 권태진 목사(운영이사, 군포제일교회)는 축사를 낭독했다.

이후 특별기도에서는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 한국교회 회개와 부흥,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 한기문의 발전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어 임영근 목사(사무총장)의 사업설명과 애찬 및 교제모이날 행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회개와 영성회복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생동감을 잃어가는 것을 우려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회개와영성회복연대 주최로 19일(월)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회개와 영성회복 세미나'에서 한양훈·정동진 목사 등 이날 초청된 강사들은 한결 같이 교회와 개인이 살 길은 '회개'임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순전한나드사역원 원장 정동진 목사(생명의빛교회)와 실로암세계선교회 대표 한양훈 목사(신광교회), 나경수 목사(신한목자교회)가 강사로 초청됐다.

정동진 목사는 '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 제하의 발제에서 "칼빈은 복음을 '회개와 죄 용서'란 두 축으로 봤다"며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았으며,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 삶은 진정한 거룩함이 나타나며 이 거룩함은 의롭다 함을 받은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고 했다.

정 목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축복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다"라며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양훈 목사는 '회개의 열매' 제하의 발제를 통해, 먼저 "하나님이 나아가길 바라신다"며 "저 역시 회개의 시간이 많았다. 내 죄가 크게 보인 이후, 남의 죄가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한국교회의 지금 이 시기는 '회개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교회 부흥기에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하며 교회를 활짝 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회개시켜 청결하게 하는 시기이며, 지금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목사는 '자범죄의 회개'와 '다 회개했다는 생각을 버릴 것'을 촉구했다.

한 목사는 "우리 교회는 자신이 이미 다 회개해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거짓 확신이 널리 퍼져있다"고 하며 "그러나 실상 덜 회개된 성도들이 대부분이며, 회개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성화되는데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교회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하는 것만 논했지, 과연 충성되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느냐 하는 면에는 생각이 짧다"며 천국과 지옥 논쟁이 아닌, 성화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수 목사는 '성경과 은사'에 대해 발제하며 성경과 은사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나 목사는 "우리나라는 초대 한국교회부터 현재까지 '은사 중시'를 주장한 미국 워필드에 영향을 받았다"며 "현재 교회 안에서는 은사의 경험과 신학적인 전통에 따른 괴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괴리를 줄이는 방법은 영적 현상을 성경으로 분별하며 동시에 은사 중시론이 성경적으로 맞는가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목사는 "우리는 고전 12장에서 강조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일체성을 잃지 말고 회복해야 한다"며 "성령 은사의 문제로 지금까지의 배척과 분열의 긴 씨름을 중지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강사들의 발제 후에는 '회개의 실제'라는 순서를 통해 영적 진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동윤 기자

# 이주여성지원센터 개소 "버려지는 이주민 아기 외면 못해"

## 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목사, 방 12칸 200여 명 생활공간 마련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80만 명을 넘어면서 원치 않는 임신에 따른 외국인 여성들의 출산이 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한국 국적 취득도 불가능하다. 또한 국내 미혼모센터나 영아원 등이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외국인 여성들은 딱히 기댈 곳이 없는 처지다.

이에 이주민 구호단체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해성 목사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거나 아기를 키울 수 없게 된 이주여성들을 위한 '이주여성 지원센터' 문을 열었다.

이주여성지원센터는 1년 전 김

목사가 받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15살된 조선족 여자 아이가 낳은 아기를 맡아 줄 수 없겠느냐는 국내 한 미혼모센터의 연락이었다. 한국 국적자가 아니면 자신들은 도와줄 수 없다는 미혼모센터의 설명에 김 목사가 뒤늦게 나섰다. 소녀는 아이를 두고 중국으로 떠나버렸고, 아이는 한국인 지인이 데리고 간 뒤였다.

그러다 김 목사는 작년 5월부터 이주여성들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게 됐고, 주변 건물들을 물색해 건물 매입비 13억원에 3억원 가량의 리모델링까지 거쳐 지금의 공간을

마련했다. 새 단장을 마친 이주여성 지원센터는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원과 영아원, 조금 자란 아이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룹홈까지 갖췄다. 상담, 정기검진, 양육 지원 등을 제공하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을 돕는다.

'이주여성지원센터'가 들어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800㎡ 규모다. 산모와 영아가 생활할 단칸방 12개 등 최대 200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 목사는 "이주여성의 아이들도 모두 귀중한 생명"이라며 그들을 돕겠다고 했다.

오상아 기자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기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동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9:12)



# 전국민의료보험시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c)(3)에 의거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소속이며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부지역:

엘에이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산타바버라 카운티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 세미나 접수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런 한인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가주 북부지부 | 지부장: 김경호 목사

☎ 213.249.1161 | shelly.moon65@gmail.com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일보 LA

☎ 949.864.9162 | cmm6791027@gmail.com



(본부)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무료전화 888-777-8226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